感應篇

智

4th Book

Confucius -

Teachings on the Hereafter -

K-1927
4270
v.4

太上感應篇圖說卷之四目錄

臣道善報
王祐　晏子　顏眞卿　劉大夏
章綸
臣道惡報
王氏　嚴世蕃　李符　楊大年
趙師羣　盧穆　行人官　石崇
王黼
子道惡報
盧鞏　孔塤　倪九　徐姓兄弟
王四
夫婦善報

宋弘　劉庭式

夫婦惡報

滿少卿　李司鑑　校尉鄰婦　鄂州夔人

厲氏

兄弟善報

蕭修撰　元德秀　趙彥霄　鄭昭先之祖

兄弟惡報

劉君祥　陳析

朋友善報

范堯夫　京三郎

朋友惡報

漳州丁姓　荆溪二人　狄靈慶　陳進士

王佑

宋太祖疑符彥卿有異志遣王祐按之謂祐還當與顯秩祐不狥太祖意爲白其事竟不大用乃手植三槐于庭曰吾子孫必有爲三公者子旦爲宋賢宰相

송나라ᄃᆡ조황제부언경의ᄃᆞᆯᆫ뜻이잇ᄂᆞᆫ가의심ᄒᆞ사왕우ᄅᆞᆯ보ᄂᆡ여안힉ᄒᆞ실ᄉᆡ우ᄃᆞ려날ᄂᆡ왈ᄂᆡ날을맛치고도라오면맛당이놉ᄒᆞᆫ벼슬을ᄒᆞ이리라ᄒᆞ시니이ᄂᆞᆫ그허물을ᄀᆡ어히엇고져ᄒᆞ시미라왕우ㅣ이ᄆᆡ안힉ᄒᆞ미그ᄅᆞ미업건ᄂᆞᆯ도로혀언경의의ᄆᆡ흠을알외고ᄃᆡ조의뜻을좃지아니ᄒᆞ니일노인ᄒᆞ여마ᄎᆞᆷᄂᆡ크게쓰이지못ᄒᆞ엿더라왕우ㅣ집ᄯᆞᆯ의괴화나무ᄭᆡ쥬ᄅᆞᆯ심어왈ᄂᆡ조손의반ᄃᆞ시삼공ᄅᆞᆯ지이시리라ᄒᆞ더니그아ᄃᆞᆯ죄송나라어진ᄌᆞ승이되니라

晏子

齊有彗星景公坐柏寢而泣晏子問之公曰寡人聞之彗星出所向之國君當之今彗向吾國是以悲晏子曰君之行義固應無德于國穿陂池則欲其深以廣也爲臺榭則欲其高且大也賦斂如偽奪誅戮如仇讎自臣觀之字之將出彗星庸何懼乎公欲使人禳之晏子曰無益也天道不諂不二其命若之何其禳之使神可祝而來亦可禳而去也百姓苦怨以萬數君令一人禳之安能勝衆口乎公欲禳災莫如修德

제경공이혜성을보고슬피울거늘안자그연고를물은대공이답왈과인이들으니혜성이향흔나라의님군이힘돕다흔대니이제혜성이정히니나라흘향흔지라이러므로슬허흔노라안자왈군의흔시는날이진실노덕이업스시니뜬흘

쓸이 못슬 만드시며 부리김고 너로록 ᄒᆞ시며 집을 지으시며
부뒤 놉고 크로록 ᄒᆞ시며 부쇠를 거두시며 속여 셰앗듯 ᄒᆞ시며
사람죽이기를 구슈죽이듯 ᄒᆞ시니 신으로 보건ᄃᆡ 혜성이 오히
려 헐을 가ᄒᆞ니이다 ᄒᆞ거ᄂᆞᆯ 공이 사람으로 ᄒᆞ여 곰괴도 코져
ᄒᆞᆫᄃᆡ 안ᄌᆡ 왈 괴도 ᄒᆞ여 유익지 아니ᄒᆞ니이다 텬도ᄂᆞᆫ 아당티
아니ᄒᆞ샤 그 명을 두번 ᄒᆞ지 아니ᄒᆞ시ᄂᆞ니 괴조 ᄒᆞᆫ들 무엇ᄒᆞ
리잇고 이제 빅성이 괴로와 ᄒᆞ고 원망 ᄒᆞᄂᆞᆫᄌᆡ 만으로써 헐
거시여ᄂᆞᆯ 곰 사람으로 ᄒᆞ여 곰괴도 ᄒᆞ랴 ᄒᆞ시니 엇지 능히 여
러 님을 막으리잇고 군이 괴도 코져 ᄒᆞ거든 덕을 닷그심
만 ᄀᆞᆺ지 못ᄒᆞ니이다 ᄒᆞ더라

顔眞卿

唐顔眞卿生平忠直楊國忠惡之出爲平原太守祿山反河北二十四郡或降或陷惟平原得眞卿賴以無虞後陞尚書李希烈陷汝州宰相盧杞欲以此陰害之奏稱希烈悍惡非眞卿重德厚望不能服之上使往諭旣至希烈積薪庭中曰若不順我當須自燒眞卿宣布朝廷威福示以君臣大義然後以身投火逆黨驚異急救眞卿作遺表自撰墓誌終不面賊而坐因縊死之時年七十有七朝廷聞之輟朝五日謚文忠後賊平遷柩還葬棺朽而公貌如生道士邢和璞曰此謂形仙也雖藏于鐵石之中亦當劈裂飛去其後家人見公在同德寺殿上行走追之不及乃知眞仙去矣

당나라안진경이성품이충직하여그른날을힘쓰지아니하

니양국충이믹이녁여니쳐평원휘슈를시것더니안녹
산이반ᄒᆞᆫᄆᆡ하북ᄯᆞᆫ이십ᄉᆞ군이모다함몰ᄒᆞ되오직평원
고을은진경을힘입어무ᄉᆞᆫᄒᆞ여ᄉᆞ더라그후의벼슬을도ᄌᆞ
아상서의니르럿더니밋니희렬이반ᄒᆞ여녀쥴을함몰ᄒᆞ
니적상노ᄀᆞ이ᄯᆞᆫ를타진경을힘코져ᄒᆞ여샹쇠알외여왈
니희렬이ᄉᆞ오납고강악ᄒᆞ니안진경의후덕중망이아니
면능히달니ᄃᆡ항복바ᄉᆞ지못ᄒᆞ리라ᄒᆞᆫᄃᆡ샹이올히ᄂᆡ기
샤진경을로ᄒᆞ여곰희렬의게보ᄂᆡ시니진경이ᄌᆞ믜희렬의
게니르믜희렬이ᄯᆞᆯ가온ᄃᆡ셥을ᄉᆞᆺ코져혀왈만일ᄂᆡ게슌
ᄅᆡ아니ᄒᆞ면이불의타죽으리라ᄒᆞ니진경이조졍의덕과
군신ᄃᆡ의를니르고몸을니러불의ᄃᆡ지려ᄒᆞ니적당이
놀나고ᄀᆞ이히녁여급히만뉴ᄒᆞ여구ᄒᆞᆫ지라진경이ᄌᆞ

의유표를지어경수로보니고안즈믜도적을리리아니흐고
인흐여목미여쥭으니시년이칠십칠세라조정이듯고크
게린동흐며시호를문충공이라흐니라그후도적이평
정흐민운구흐여도라올시관은썩엇시되공의얼골은
싱젼ᄀᆞᆺ흔지라도ᄉᆞ형화박이왈이ᄂᆞ니른바형선이
니비록철석가온ᄃᆡ감초아도맛츰ᄂᆡ ᄭᅵ치고비샹ᄒᆞ던
흐리라흐더니그후의집사ᄅᆞᆷ이공을동덕ᄉᆞ란ᄀᆞᆯ의서만
나보니젼우흐로건ᄂᆞᆯ거ᄂᆞᆯ ᄭᅳ라도ᄆᆡᆺ지못흐ᄂᆞᆫ지라이에
츰신선이되엿ᄂᆞᆫ줄을알ᄂᆞ니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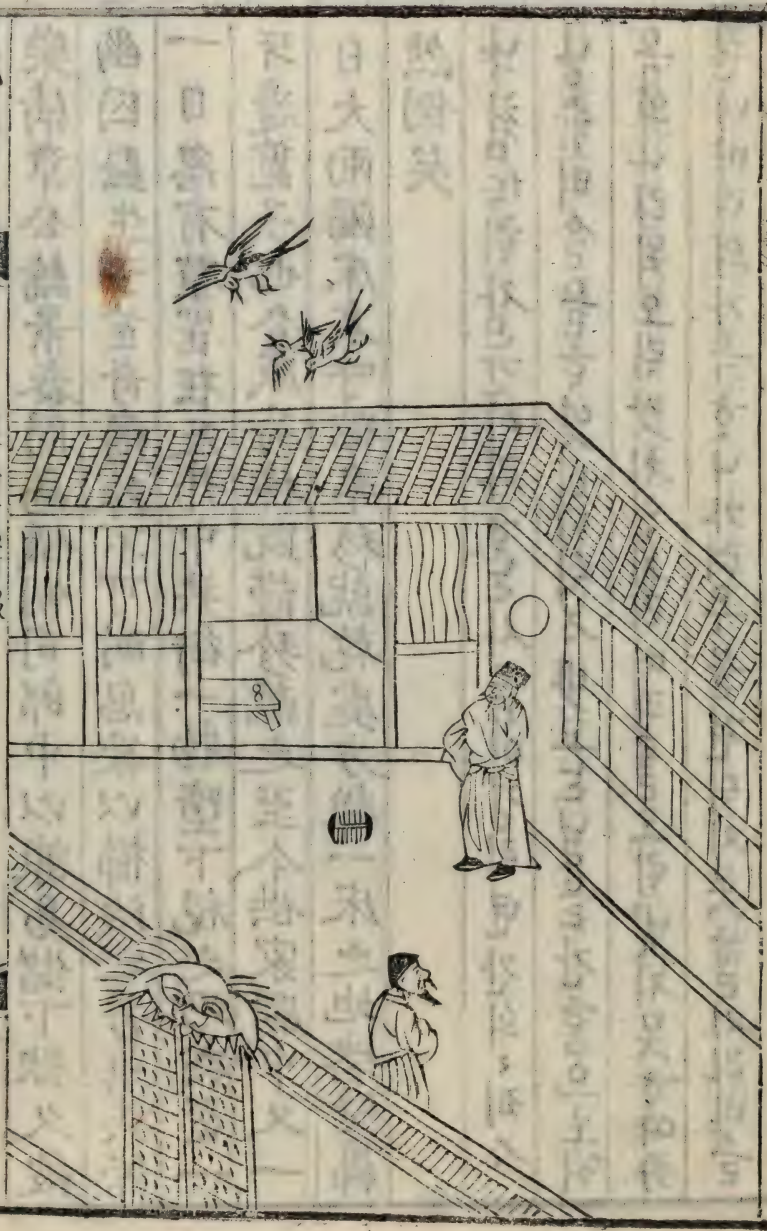
劉大夏

成化中朝廷好寶玩內侍言宣德朝嘗遣王三保使西洋獲寶無數上命內侍至兵部查西洋水程時項忠爲尚書劉大夏爲車駕郎中項使一都吏撿舊案劉先得匿之都吏徧撿不得凡三日劉竟不言項笞吏曰無矣後事寢項呼吏詰之劉笑曰三保下西洋時勞擾軍民死者萬計縱得珍寶何益舊案雖在亦當燬之尚追究有無耶項降位揖謝指其位曰公陰德不細此位不久當屬公矣後劉果爲兵部尚書

성화년간의상이보화를도하ᄒᆞ실ᄉᆡ니시말ᄒᆞ되선조ᄉᆡ의일즉왕삼보로ᄒᆞ여금서양국의ᄉᆞ신ᄒᆞ여보화ᄋᆞ으ᄆᆡ무슈ᄒᆞ다ᄒᆞ니상이즉시병부의명ᄒᆞ여서양국물길을상고ᄒᆞ라ᄒᆞ시니이ᄉᆡ항충은병부상서요뉴ᄅᆡ하ᄂᆞ병부낭중이

라아전을명호여텨등녹을츠즐시뉴뒤해문져엇어감
초고뵈지아니호니아전이삼일을츠즈되엇지못호지라항충
이그아전을중칙호니또호호일엄셔그날이그쳣더라그
후의항충이그날을의혹호여드시무르니뉴뒤해소왈항
즈의삼뵈셔앙국의노려가민군민을소요호여죽은지만여
인이라비록보화를엇으나무슴유익호리오이제그문셰
이더라호여도맛당이불질너업시호려는오히려츠즈려
호는뇨항충이셔드라좌의나려샤례호고안젓던즈리
를ㅁㄹ, 쳐왈공의음덕이적지아니호니오리지아니호
여이자리의안조리라호더니그후의뉴뒤해과연병부상
셔를호여스더라

章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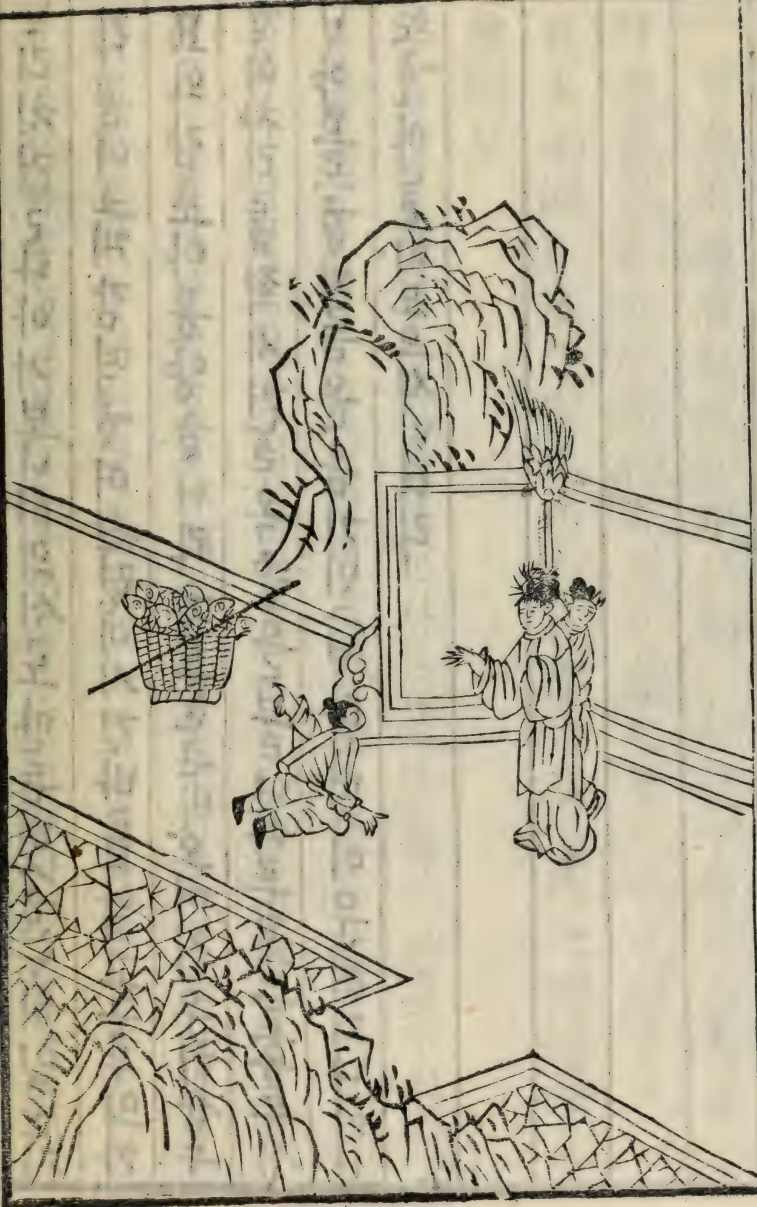


樂淸章公綸景泰間爲儀制司郎中以諫易儲下獄久被幽囚蝨生于首奇癢殊不可耐息欲以櫛治之苦無其器一日忽有羣雀在天井中共銜一物墮下視之乃新置一牙邊篦子也公感荷神貺謹珍藏之至今供家廟中又一日大雨漏床哀呼獄卒移就乾處方離一床之地墻壁轟然倒矣

낙청신히장은근이라ᄒᆞᆫ사ᄅᆞᆷ이경ᄃᆡ년간의ᄉᆞ죄ᄉᆞ
낭중벼ᄉᆞᆯ을ᄒᆞ여ᄃᆞ니ᄒᆡᄌᆞ밧고ᄂᆞᆫ날을간흠으로ᄆᆡ
옥의나리워오ᄅᆡ갓치인지라ᄆᆡᄅᆞ를오ᄅᆡ빗지못ᄒᆞ여쥬
린ᄂᆡᄆᆡᄅᆡ의가득ᄒᆞ니가려우믈견ᄃᆡ지못ᄒᆞᆯ지라비ᄉᆞᆯ
엇어빗고적ᄒᆞ나엇을ᄃᆡ업ᄉᆡ근심ᄒᆞ더니일ᄉᆞ은홀연
여러참ᄉᆡ울ᄆᆡ니ᄇᆞ으로무어ᄉᆞᆯ물고ᄂᆞ라와ᄯᆞᆯ가온ᄃᆡ

ᄂᆞ리치건ᄂᆞ나아가보니이의ᄉᆡ로만든비ᄉᆞ흔ᄇᆡ이ᄉᆞ는지
라공이크게감격ᄒᆞ여신령이시긴바를알고그후의가
모의감초아공양ᄒᆞ니라ᄒᆞ로ᄂᆞ큰비오며집우히삼ᄒᆞ
ᄒᆞ여자리를적시건ᄂᆞ옥졸을불너마ᄅᆞ곳으로옮ᄆᆞᆯ시
ᄇᆡ야ᄒᆞ로ᄒᆞ건름을옴기ᄆᆡ그ᄇᆡ람벽이문허지니이
ᄉᆞᆫᄒᆞ흔하ᄂᆞᆯ이도ᄋᆞ시미려라

王氏



秦檜夫人王氏入宮顯仁太后賜饌因言近日子魚絶少王氏曰妾家頗有之當以百尾進歸告檜檜咎其失言恐因此一物朝廷疑四方貢進過於帝室乃進青魚百尾太后笑曰我道這婆子邨果然檜及王氏欺罔之罪果報詳後

진회의부인왕시귈중의드러가현인태후씌조현흘시
태후음식을먹이시며그릇샤뒤근일의조어라ᄒᆞ는고기
ᄭᆞᆯ귀ᄒᆞ여엇어보기어렵다ᄒᆞ시니왕시쥬ᄒᆞ여왈쳡ᄇᆞ의
집의조못잇ᄉᆞ오니맛당이빅머리를드려진어케ᄒᆞ리이
다ᄒᆞ고도라와회ᄃᆞ려고ᄒᆞ니회그말을듯고크게놀나잘
못ᄒᆞ다ᄭᆞ지ᄭᆞ왈이고기극히귀ᄒᆞ거늘이제만일빅머리나드
리면일노인ᄒᆞ여조정이의심ᄒᆞ되ᄉᆞ방의됴흔진봉이니

집의문져ᄒᆞᆫ다ᄒᆞᆫ며ᄯᅩᄒᆞᆫ님군의셔더ᄒᆞᆫ라ᄒᆞᆫ리라ᄒᆞᆫ고드
ᄃᆞ여청어빅머리를드리며조어로라날ᄀᆞ르니ᄒᆞᆨ보시
고우셔글ᄋᆞ샤ᄃᆡ니니르ᄃᆡ져파ᄌᆞ를촌스럽다ᄒᆞᆫ엿더니
과연이로다ᄂᆡ혜아리건ᄃᆡ조어의결ᄀᆡ ᄒᆞᆷ으로엇지
빅머리토록잇ᄂᆞᆫ고ᄒᆞᆫ여스더니이제청어를가져조어
로알아ᄉᆞ도다ᄒᆞᆫ시니이ᄂᆞᆫ간ᄉᆞᆫ외로뵈님군을속여
져의의권을가리우미라그후의진회와왕시귀망
ᄒᆞᆫ죄로뵈ᄒᆞᆫ가지로법을밧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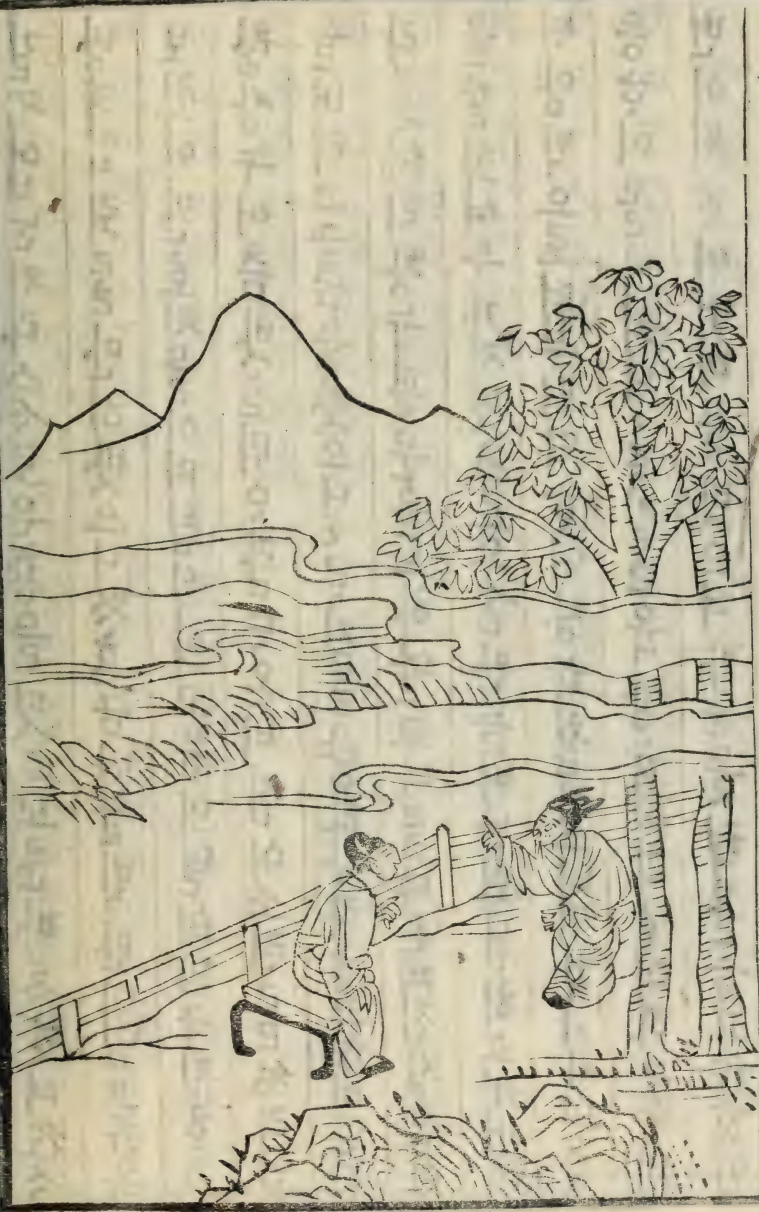
嚴世蕃

明嘉靖時嚴嵩權相也其子世蕃小有才知典故及邊事凡事能合上旨怙寵驕恣大通賄賂積金至八百萬有奇珍寶聲色極世之選臥而唾必一美女以口承之方發聲婢口已巧就謂之香唾盂雜用錦罽織成雙陸點位用美女三十人衣別二色世蕃每與客對藝喝點而女子已至其位謂之肉雙陸世蕃敗江陵郡守奉詔籍其家見臥榻下綾巾無數不省所用因袖其一以咨諸人左右有知者掩口曰此穢巾也每與女合則用一而棄之歲終數之謂之淫籌世蕃無子伏誅

명나라가정연의엄숭이는용권흉는권승이라그아들세번이적이지조와지혜잇고녯적스적이며번방스로는능히말흐는지라민스의샹의뜻을마조와총권이비

길지어ᄂᆞᆫ지라ᄉᆞᄉᆞ로ᄋᆞᆫ총을ᄆᆡᆺ고교만방ᄌᆞ ᄒᆞ며또ᄉᆞ
방의회뢰를만히밧으니ᄯᆞᆺᄒᆞᆫ금이팔빅만이넘고쥬옥
보화와완호지물이며셩식의고음이일쇠의극진ᄒᆞ고
항상누어츰밧ᄒᆞ미ᄋᆞ감ᄃᆞ온계집이소리를또라입
을버리고그츰을밧으니ᄂᆞ를기를향ᄒᆞ구라ᄒᆞ고또비단자
리를ᄯᅡ미쌍뉵판문을노하ᄲᆞᆯ고아름다온계집삼십인
을갈희여두가지ᄇᆡᆺᄎᆞ로오ᄉᆞ를만들어난화ᄂᆞᆷ히고쇠번이
ᄆᆡ양ᄀᆡᆨ으로더부러ᄃᆡ ᄒᆞ여쌍뉵칠ᄉᆞ그녀ᄌᆡ각기사위를
응ᄒᆞ여오ᄅᆞ마ᄉᆞ니ᄂᆞ를기를육쌍뉵이라ᄒᆞ더라그후셰
번이ᄑᆡᆨᄒᆞ여버히ᄆᆞᆯ밧으며가샨을ᄀᆞᆨ몰ᄒᆞ고또ᄒᆞᆫ아
ᄃᆞᆯ이엄ᄉᆡ후ᄉᆞ ᄭᆞᆺ쳐지니라

李符



盧多遜貶朱崖李符謂趙普曰朱崖雖在海外而水土不甚惡春州雖在內地而至者無生還曷若改竄春州普不答未幾符亦坐事竄宣州上怒未已或以符語奏上卽改竄春州到未一旬而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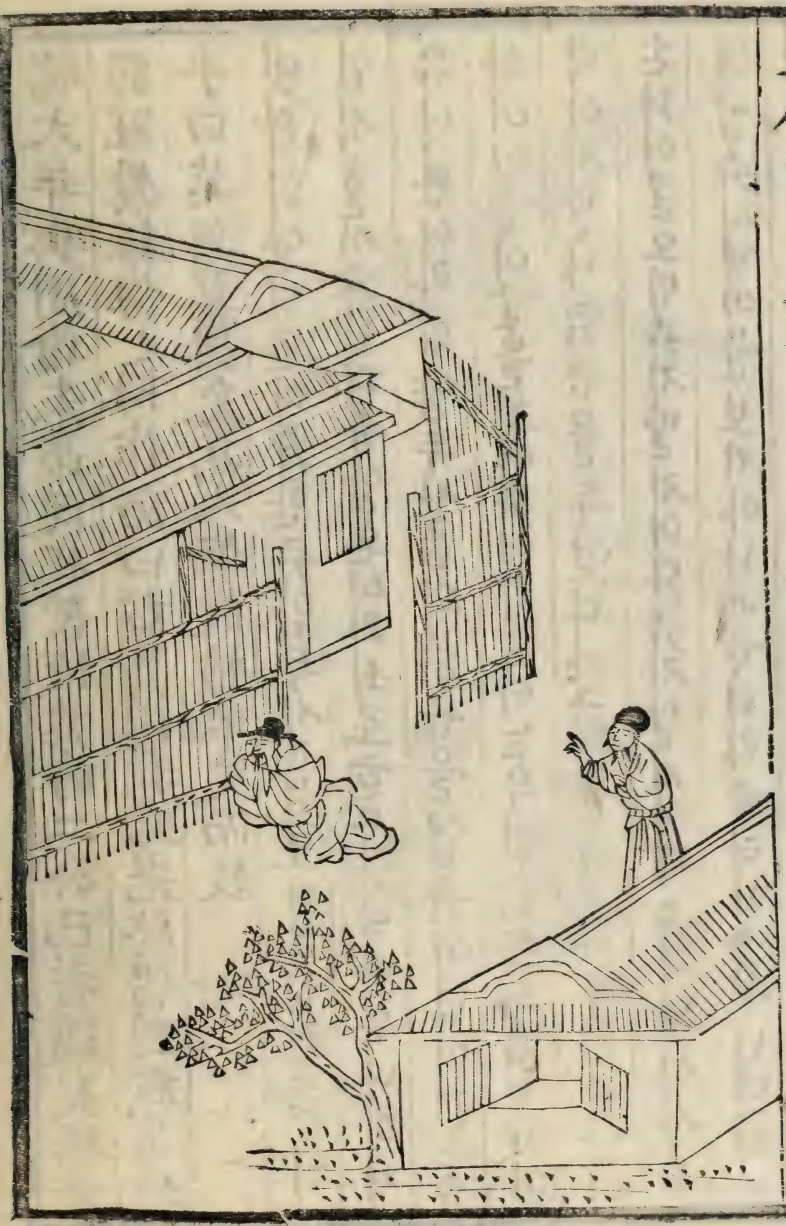
노다손이쥬의로귀향갈ᄉᆡᄂᆡ뵈ᄑᆞ보의게아첨ᄒᆞ여왈쥬의비록ᄒᆡ외ᄉᆞ히나슈ᄒᆡ홍ᄒᆡ아니ᄒᆞ고ᄎᆞᆫ쥬ᄂᆞᆫ비록갓가온ᄉᆞ히나가ᄂᆞᆫ사ᄅᆞᆷ이ᄉᆞᆯ아도라오ᄂᆞᆫ지엄ᄉᆞ니그리로고쳐보ᄂᆡ미ᄑᆞ흐리이다ᄒᆞᆫ디ᄑᆞ뵈ᄃᆞᆺ지아니ᄒᆞ여ᄉᆞ더니그후오ᄅᆡ지아니ᄒᆞ여ᄂᆡ뵈ᄉᆞᆫᄒᆞᆫ상ᄭᆡ죄를ᄋᆞᆺ어선쥬로귀향보ᄂᆡ시더니사ᄅᆞᆷ이니부의ᄑᆞ보ᄅᆞ려ᄒᆞ던말을고ᄒᆞ니상이즉시니부의ᄇᆡ소ᄅᆞ로고쳐춘쥬로보ᄂᆡ시니그ᄉᆞ히니ᄅᆞ러십일이못ᄒᆞ여죽으니라

楊大年

楊大年與周翰朱昂同在禁掖其時二公已耆邁矣楊方弱冠屢輕侮之因作語曰君莫侮我老老終留到君昂搖手曰莫與莫與免爲人侮後楊未艾而歿

벼슬의 양뒤년이 쥬한 쥬앙두사람으로 더부러 결쥬의 입직홀시 쥬한과 쥬앙은 이미 쇠로 ᄒᆞ고 양뒤년은 나히 겨유 약관이라 미양 두사람의 ᄂᆞᆯ음을 업슈이 넉이 건ᄂᆞᆯ 쥬한이 인ᄒᆞ여 글을 지어 쥬어 왈 그ᄃᆡ ᄂᆞᆫ 우리 ᄂᆞᆯ음을 업슈이 넉이지 말나 ᄂᆞᆯ음을 두엇다가 그ᄃᆡ ᄅᆞᆯ 쥬려라 ᄒᆞ ᄃᆡ 쥬앙이 손져 어ᄭᆞᆯ오ᄃᆡ 쥬지 말지어다 쥬지 말지어다 쥬지 말아 사람의 ᄂᆞᆯ 쥬이 넉이 믈 보지 아니게 ᄒᆞ리라 ᄒᆞ더니 그후 뒤년이 나히 삼십이 못ᄒᆞ여 죽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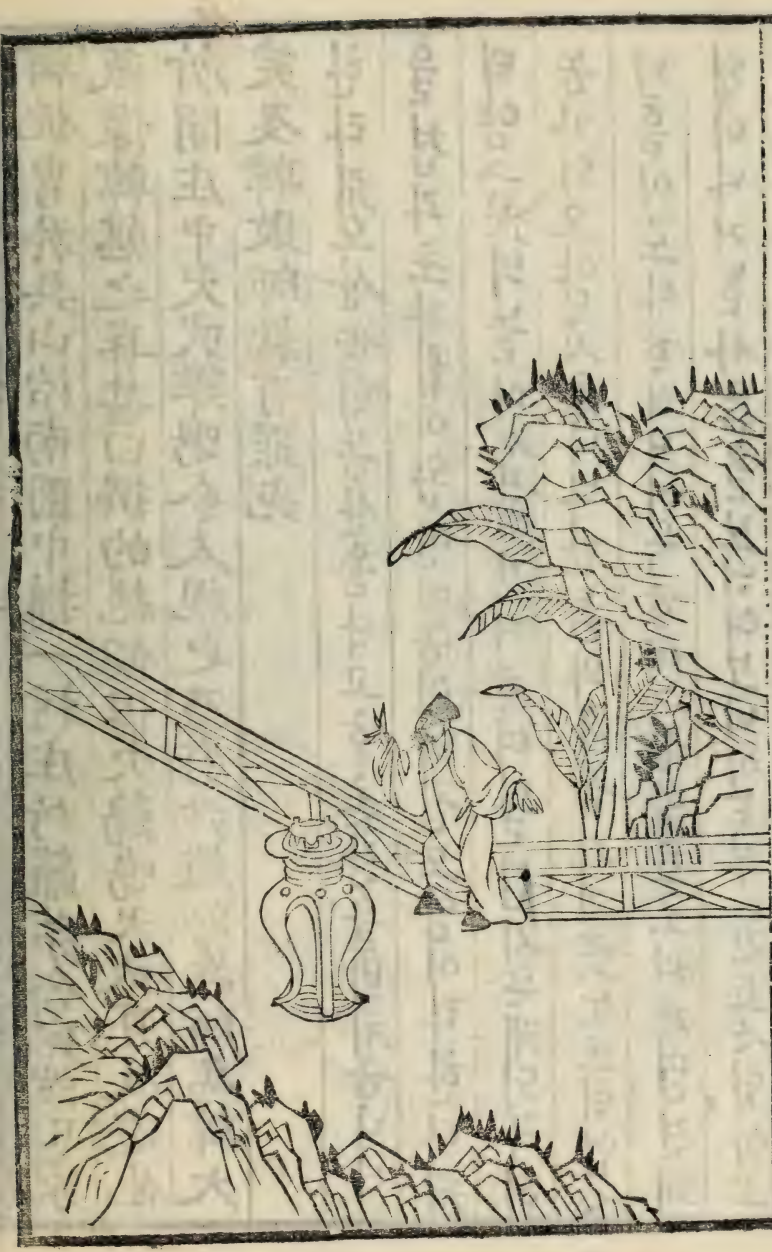
趙師異



韓伇胄於吳山治南園中搆一村庄竹籬茅舍宛然田家氣像韓憙之喜甚曰撰的絶似但欠鷄鳴犬吠耳及遊他所聞庄中犬吠雞鳴令人視之乃府尹趙師睪所爲韓大笑及韓敗師睪有罪死

한타쥐오산 쓰히동산을닥고훈촌장을비치훈니ㄷ 울셤과조가집이완연이농인의집모양이라한타쥐 ㅁ양그곳의놀며심히기거훈여왈집지은제되극히 농가의모양곳흐나다만ㄷ리의우름과ㄱ즛ㄴ소리업ㅅ 미흠이로다훈ㄷ니이윽훈여그집안흐로서계명견폐 셩이나거늘사름을보ㄴ여보니이ㄴ부윤도ㅅ탁의소 리홈이라한타쥐크게웃고즐기ㄷ라ㅁ타쥐피훈ㅁ ㅅ탁이또훈죄의죽으니라

盧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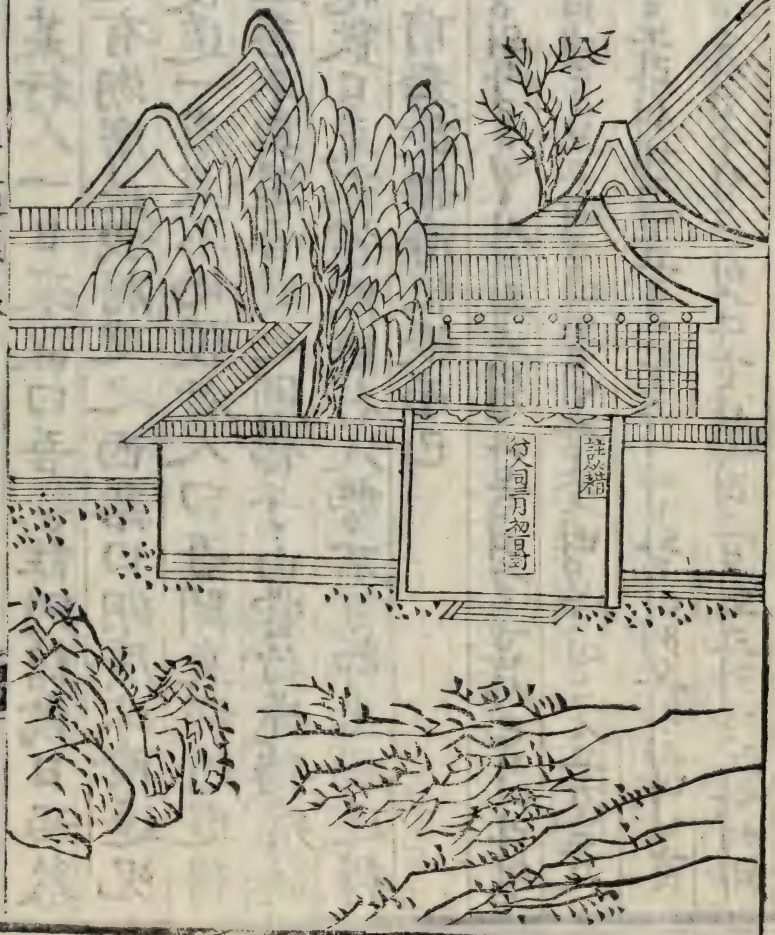


盧穆夜懷百金送王文正公求爲江淮發運公辭曰顧公之才不堪充此職敢以私賂廢公道乎盧慙而退終夕焚香願文正速死一夕夢神叱曰王某盡心於國汝乃欲其速死帝將罪汝乃醒汗流遍體數日卒

송나라노목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밤의빅금저물을가지고왕문정공의게나아가그금을드리고강회젼운ᄉᆞ를ᄒᆞ여지라ᄒᆞ거ᄂᆞᆯ문정공이ᄉᆞ양ᄒᆞ여ᄀᆞᆯ오ᄃᆡ공의지조를보건ᄃᆡ이벼ᄉᆞᆯ의감당ᄒᆡ못ᄒᆞ리니엇지감히ᄉᆞ회ᄅᆡ를밧고공ᄉᆞ를그릇ᄒᆞ리오ᄒᆞ니노목이붓그리며분ᄒᆞ여물너가밤이맛도록향을퓌우고공츙을향ᄒᆞ여빌되문정공을ᄉᆞᆯ니죽으라츅원ᄒᆞ더니ᄒᆞ로밤꿈의신령이ᄭᆞ지ᄭᆞᆯ오ᄃᆡ왕공이나라ᄒᆞᆯ위ᄒᆞ여ᄆᆞ음을

다흐건늘네이제간스흐뜻을니루지못흐미도로혀작흔
사름을샐리쥭으라쥭원흐니네죄악이갈스록중디흐여샹
제장츳너를죄쥬시리라흐건늘놀나씨니일신의뜸이갈득흐고
슈일이못흐여쥭으니라

行人官



龍西谿同年某行人一日來謀曰吾欲註門籍幾日西谿問故答曰近有湖廣差我將避之西谿曰湖廣非險遠況尊翁在堂便道一省豈不兩便行人曰吾聞吏部將選科道若承此差恐不與選吾避之則楊子山當行遂稱病註門籍不意纔數日吏部據開選行人勢不可卽出楊遂得吏科行人仍前差徒撫膺恨悵而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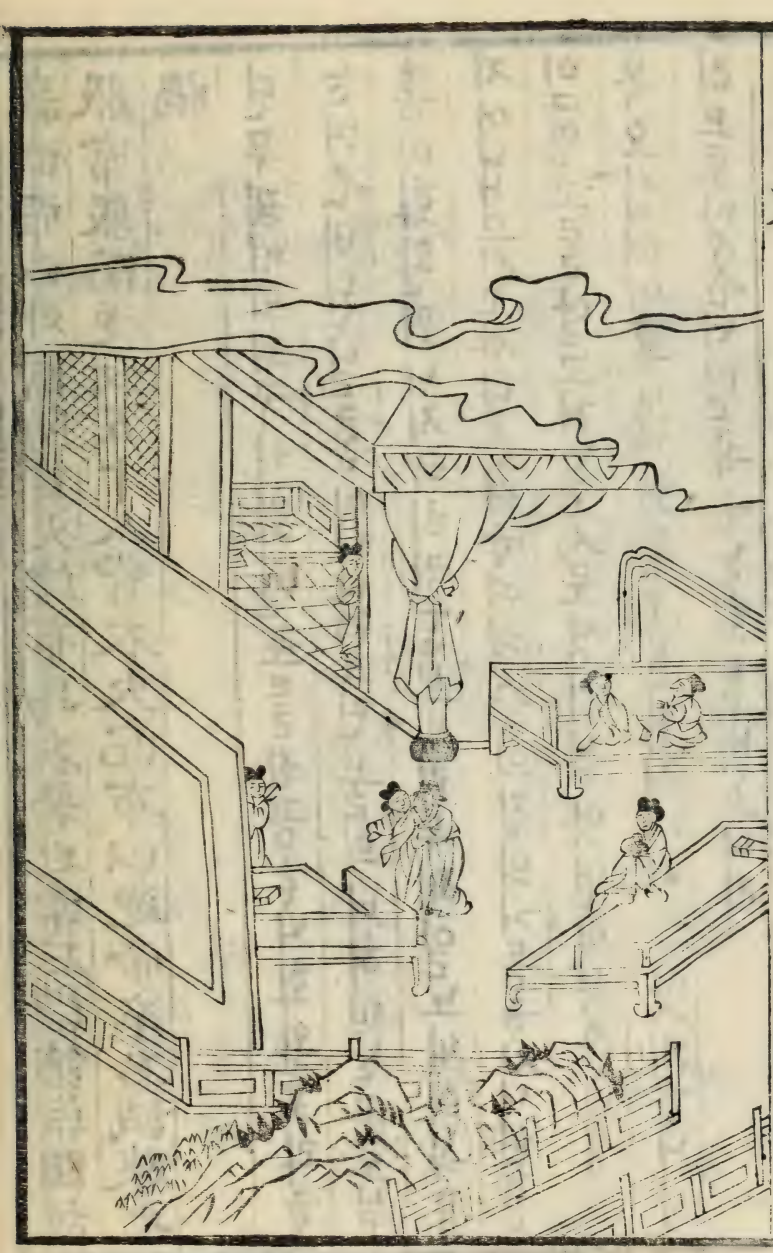
뇽서계와동방의사람이ㅅ시니치ㅅ원만을벼슬ㅎ은사람이라일일은그사람이서계를보고쇠ㅎ여왈니장ㅊㅅ병을일ㅋㅅ고ㅎ는동안슈유ㅎ려ㅎ노라서계ㄱ연고를무르니답왈이제오리지아니ㅎ여호광ㅅ히치ㅅ원구실이잇다ㅎ니이러므로피코려ㅎ노라서계왈호광이멀며험ㅎ ㅅ히아니어늘어ㅅ지피코려ㅎ는표그사람이왈남ㄷ르니ㅅ부의서과도벼슬을샌라ㅎ니만일이치ㅅ원을

당ᄒᆞ면 니부과도의 잡여ᄒᆞ 못ᄒᆞ을가ᄒᆞᄂᆞ니 이제 ᄂᆞ피ᄒᆞ즉 나
의 갈길은 양ᄌᆞ산이 당치되ᄂᆞ 거시오 그후의 과도ᄒᆞᄂᆞ 나의 ᄌᆞ례되리
라 ᄒᆞ고 듯여 병을 일ᄏᆞ고 마을의 슈유ᄒᆞ 엿더니 슈일이 못ᄒᆞ여
듯밧 ᄀᆞ니 부의 ᄉᆡ과도를 ᄲᆡᄂᆞ지라 그사름은 이ᄆᆡ 병장ᄒᆞ으로
즉시 나오지 못ᄒᆞ고 이ᄉᆡ 호광 길은 아직 정리 못ᄒᆞ 엿ᄂᆞ지라 니
부과도의 ᄌᆞ연이 양ᄌᆞ산이 당치되여 ᄲᆡ히고 그사름은 도로 치ᄉᆞ원
당치되여 가니 ᄒᆞ갓 감ᄉᆞ을 쳐 한 판을 ᄲᆞᆫ이라 이ᄂᆞᆫ 계구실을
남의 게 미루고 저ᄂᆞᆫ 남의 벼슬 ᄎᆞ례를 아ᄉᆞ려 ᄒᆞᆫ 계교 도로 혀 ᄭᆡ 벼
슬 당ᄎᆞ를 남의 게 보ᄂᆡ고 남의 구실을 ᄭᆡ 밧 앗시ᄆᆞ이러라

石崇

晉武帝以外國所貢火浣布爲衣著之幸石崇第崇聞故服常服而從奴五十人皆衣火浣布以迎帝卒召滅族之禍

진무제ᄭᅥᆨ의외국ᄉᆡ화완포ᄅᆞᆯ진공ᄒᆞᆫᄂᆡ화완포라ᄒᆞᆫ
ᄂᆞᆫ거ᄉᆞᆫ비단ᄂᆡᆯ홈이니나ᄅᆞ으면불의ᄂᆡ허ᄲᅡᆫᄂᆞᆫ고로ᄂᆡᆯ
홈이화완포ᄂᆡ지극히귀ᄒᆞᆫ보ᄇᆡ라무제일노ᄭᅡ의복을
지어ᄂᆡ븐시고자랑코져ᄒᆞᆫ여석숭의집의거동ᄒᆞᆫ시니석숭
이그연고ᄅᆞᆯ알고져ᄂᆞᆫ스ᄉᆞ로상히ᄂᆡ븐옷ᄃᆞᆫ의복을ᄂᆡ븐고ᄂᆞ
복오십여인ᄋᆞᆫ모다화완포ᄅᆞᆯᄂᆡ븐혀어가ᄅᆞᆯ맛게ᄒᆞᆫᄂᆡ이
러므로맛ᄌᆞᆷᄂᆡ멸족ᄒᆞᆫᄂᆞᆫ화ᄅᆞᆯ밧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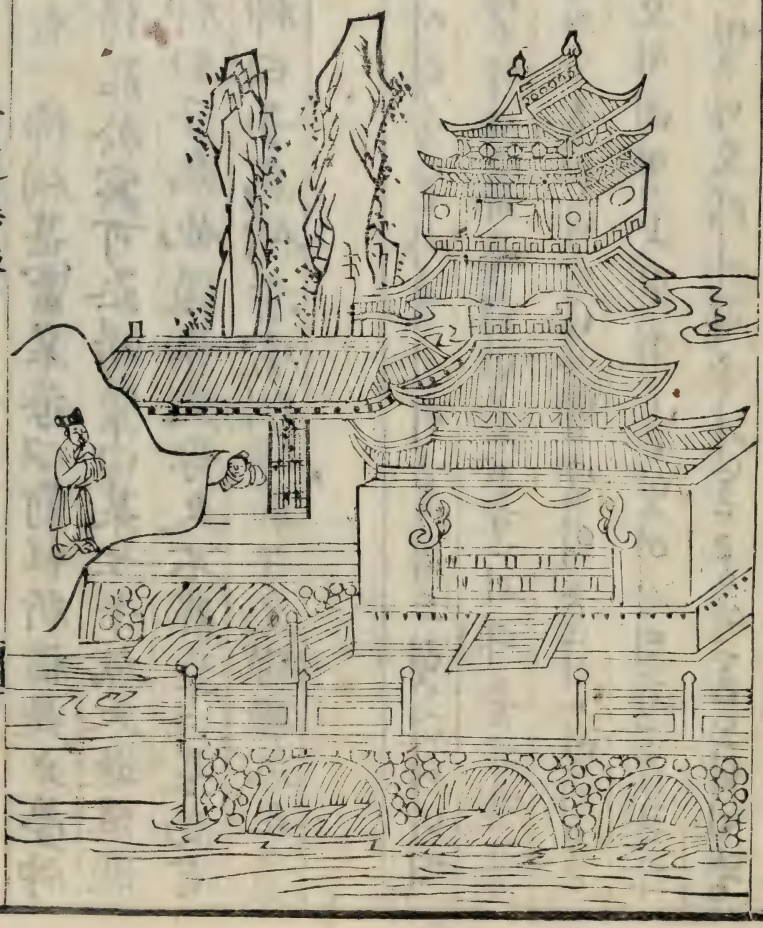


玉蘭

王黼爲相窮極富貴置大榻於寢室用金玉爲屏翡翠爲帳環以小榻十數擇美麗姬妾居之恣爲淫樂日夜不已所親或規之曰此危道也不見夫所謂飛蛾者乎飛翔燭上驅之不去終於焦爛必期於死聲色之害不啻膏火也而乃日崇不已淫慾無度後悔何及乎黼不聽未幾禍作身首異處

딧럭의왕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졍승이되여ᄉᆞᆯ시부귀극진ᄒᆞ고공ᄉᆞ극ᄒᆞᆫ여ᄌᆞᄂᆞᆫ방의ᄀᆞᆫ평상을노하ᄀᆞ우희거처ᄒᆞᆫ시금오ᄀᆞ으로만든병풍과비취로만든장막이극히화려ᄒᆞ며ᄀᆞᆫ평상슈십좌를둘너노코아ᄅᆞᆷ다온희첩을만히갈히여ᄀᆞ우희잇게ᄒᆞ고방ᄌᆞ히음난ᄒᆞ여ᄌᆞᆯ기ᄀᆞ를밤낫으로ᄀᆞᆺ치지아니ᄒᆞ거ᄂᆞᆯ친ᄒᆞᆫ사ᄅᆞᆷ이경계ᄒᆞ여ᄀᆞᆯ오ᄃᆡ이ᄂᆞᆫ의ᄃᆡᄒᆞᆫ날이라ᄀᆞᄃᆡ엇지비아지박ᄃᆞᆼ을보지

못ᄒᆞ엿ᄂᆞ다부ᄂᆞ뷔등잔불의갈녀들ᄆᆡ사ᄅᆞᆷ이아모리쏫ᄎᆞ
도가지아니ᄒᆞ고필경ᄃᆡ와쥭기의ᄂᆡ르ᄂᆞ니셩식의사ᄅᆞᆷ힌ᄒᆞ옴
이등잔불만ᄒᆞᆯ뿐이아니라장ᄎᆞ몸을ᄲᅡ질거시어ᄂᆞᆯ이제
그ᄃᆡ날마ᄃᆞ즐겨그치지아니ᄒᆞ고음욕이무한ᄒᆞ니후의뉘우
ᄎᆞᆫ들엇지ᄆᆡᆺ치리요뵈듯지아니ᄒᆞ더니오ᄅᆡ지아니ᄒᆞ여홰
니려죄로뷔ᄃᆞ리버히니라



虛華

盧鞏游太學有一神祠甚靈鞏每以前程所禱是夕夢神叱之曰子已得罪於冥可亟歸鞏曰某生平無大過惡願聞獲罪之由神曰子無他過惟父母久不葬鞏曰某尚有兄何獨受罪神曰子爲儒者當明理義子兄碌碌不足責也是年果死

녯적의 노공이라 ᄒᆞᆫ 사ᄅᆞᆷ이 ᄒᆡᆨ ᄒᆞᆫ의 ᄃᆞᆯ렷더니 이ᄯᆡ ᄒᆞᆫ 곳의 신당이 잇ᄉᆡ 극히 녕험ᄒᆞᆫ지라 공이 ᄆᆡᆨ양 ᄀᆞᆫ 짱으로 ᄇᆡᆨ거 도ᄒᆞᆫ 더니 이날 밤 ᄭᆞᆷ의 ᄒᆞᆫ 신령이 ᄇᆞᆯ ᄀᆞᆫ ᄌᆞ지 ᄀᆞᆯ오ᄃᆡ 네 명부의 죄를 엇어 시ᄆᆡ 장ᄎᆞᆺ 큰 화를 ᄇᆞᆺ을 지니 ᄲᆞᆯ니 도라가라 ᄒᆞᆫ 거ᄂᆞᆯ 공이 ᄀᆞᆯ오ᄃᆡ 니 평생의 큰 허물이 업ᄂᆞ니 원ᄂᆞᆫ 건ᄃᆡ 죄 엇은 연고를 ᄃᆞᆺ고 저 ᄒᆞᆫ노라 그 신령이 ᄀᆞᆯ으ᄃᆡ 네 죄ᄂᆞᆫ ᄃᆞᆯ르미 아니라 오

직 너의부모를오리장ᄉᆞ흐지아니홈이니라흐니공
이를오ᄃᆡ만일이날노뻐죄라흐진ᄃᆡ이또흐원민
흐날이라ᄂᆡ집의형이잇거ᄂᆞᆯ엇지홀노ᄂᆡ죄라
흐리잇가신령왈네형은ᄂᆞᆨ〻흐여칙망흐ᄇᆡ아
니요너ᄂᆞᆫ선비의몸이라맛당이의리를알거시니
칙망을엇지면흐리요흐더니그후오리지아니흐
여과연쥭으니라

孔塤

孔塤丁母憂旣葬歷官至秘書丞始歸焚黃其母忽現其
前責曰汝棄吾去盜發吾塚歲時祭享寄食二女家爲子
當如是耶陰司本欲罪汝以警於世爲汝處官修謹姑且
置之自此切須勤視墳塚歲設一祭以寧山神亦以安我
也

뎃적공훈이란사람이모상을당ᄒᆞ여이미장ᄉᆞᄒᆞ
고벼슬ᄒᆞ여비셔승을ᄒᆞ여ᄃᆞ니ᄃᆡᆺ도라가소분ᄒᆞ을세
그모친이홀연암ᄒᆞ의ᄋᆞ셔책ᄒᆞ여ᄋᆞᆯ네날을ᄇᆞ리고
간후오리오지아니ᄒᆞ미ᄆᆞᆨ덤은도적의손의파이ᄆᆞ을당ᄒᆞ
고세시의제ᄉᆞᄂᆞᆫ두ᄯᆞᆯ의게부치여밧ᄋᆞ니ᄌᆞ식의도리맛당
이ᄉᆞ지ᄒᆞ랴음부의ᄉᆞ셔ᄃᆞ러ᄅᆞ죄쥬어세상사람을징계ᄒᆞ려
ᄒᆞ더니네벼슬의ᄎᆞᆨᄒᆞ여ᄌᆞ못근신ᄒᆞ기로아직중지ᄒᆞ여ᄋᆞ

시니이후는모로미삼가고됴심흐여무럼을즉실이
보슬피며히마다흔번식제수흐여산신을위로흐고
또흔날을편게흐라흐더라

倪九

青田木竈山居民倪九者惑於婦言不孝其母母衣食不充遇事不許開口值秋禾方熟令母舂新穀烹雞治飯同妻食畢以餘付母母憤不能下咽涕淚告天是夜烈風驟雨有大石自山巔裂正壓倪九寢榻復破左壁而出至於澗西其母無恙也曉村人聚觀室已空矣母繞崖泣尋止有幼孫數血指粘於石尖而子婦莫知死所矣陳中州牧其事因作誅逆崖記

청전목조산꼬히잇ㄴ빅성의예구라ㅎ는사름이이시니그처의말의혹ㅎ여그어미의게불효ㅎ니그어미의ㅣ식이죵ㅣ쥴ㅎ을식잇ㄴ지라또가즁의날이ㅣ스미혹그어미ㅂ분별고져ㅎ즉위력으로막잘나지구치못ㅎ게ㅎ더라일ㅣ은츄슈시를당ㅎ여식곡식이비야ㅎ로

익은지라 그어미로ᄒᆞ여금신곡을방하씨어밥을지어
고등을슬마부쳐ᄌᆞ치먹은후의남겨지로써어미를쥬
니그어미ᄃᆞᆼ분ᄒᆞ여능히먹지못ᄒᆞ고눈물을흘녀한ᄃᆞ
ᄭᆡ고ᄒᆞ더니이밤의홀연모진ᄇᆞ람과급ᄒᆞᆫ비크게오더니
큰바회산을ᄭᆡ치고나려와예구의ᄌᆞ는방을눌너바으고
ᄃᆞ시구을너져편바람벽을쓸고서편시ᄂᆡ가희노히니그
어미홀노무ᄉᆞᆫᄒᆞ고그아들과며ᄂᆞ리는죽은곳을모르ᄅᆞ
너라그후진중쥬란션비그날을쾌히너겨글지어돌을
칭찬ᄒᆞ니라

徐姓兄弟

龍游徐氏兄弟二人相距十餘里五日一輪養母兄貧甚而弟稍豐兄供母饘粥不給輪內尚缺二日語母曰食之且往弟家遲當補缺母往弟門弟不納曰兄供未滿母語以兄意堅拒如初母聞飯熟乞少許充飢弟密令妻取飯甑置床覆以被母乃垂淚還未里許雷電交作有神自籬外入提飯甑擊之遂震其妻死於門夫死於室

녯적의뉴유신히셔가형뎨잇스니각거ᄒᆞ여상게십여리라형뎨오일식돌녀어미를봉양ᄒᆞ을시형은심히가난ᄒᆞ고아우ᄂᆞᆫ적이요부ᄒᆞ더라일ᄌᆞ은그형이어미를공양ᄒᆞ다가쥭물이넉ᄌᆞ지못ᄒᆞ여돌니ᄂᆞᆫ츠례의두날을치오지못ᄒᆞ고어미를권ᄒᆞ여아우의집으로보니고아우의게말을부쳐니르되이번부족ᄒᆞᆫ두날은이다음츠례의치

오마ᄒᆞ여 그어미이믜ᄭᆞᆨ은아들의집의니르니그ᄭᆞᆨ은아
들이드리지아니ᄒᆞ여왈형의ᄎᆞ례나ᄅᆞ이아직차지아니ᄒᆞ
다ᄒᆞ고문을굿이닷고드리지아니ᄒᆞ니기뫼ᄇᆡ곱프미ᄌᆞ절
ᄒᆞᆫ지라ᄯᆞ밥ᄉᆞᆯᄂᆞᆫ소리ᄅᆞᆯ듯고비러왈아모러나조곰만쥬
면쥬리ᄂᆞᆫ창ᄌᆞ를ᄭᆞᆨ이메우리라ᄒᆞ거ᄂᆞᆯ기지ᄭᆡ쳐로ᄒᆞ여곰
밥ᄉᆞᆺᄎᆞᆯ뗴혀상아ᄅᆡ감초ᄒᆞ이불ᄂᆞ덥ᄒᆞ니기뫼이의눈
물을흘니고도라갈시문득반니ᄅᆞᆯ못가셔뇌졍벽ᄯᆡᆨ
이교작ᄒᆞ며ᄒᆞᆫ신령이그집울밧그로ᄉᆡᆨ뜨여드러와그밥
ᄉᆞᆺᄎᆞᆯ벽ᄯᆡᆨ으로두드리고드여그부ᄎᆡᆨᄅᆞᆯ조ᄉᆞᆺᄎᆞᆯ시ᄒᆞ니
ᄒᆞᆫ문의셔죽이고ᄒᆞ나ᄒᆞᆫ집의셔죽이니라

王四

宋臨川縣民王四事父不孝父不勝忿欲赴訴於官王四持錢二百趕上疾呼曰以是爲紙筆費投父懷中父行未半里雷雨大作急避人家雨止而出聞其子已震死趨視之錢乃在子脅下與肉相連及探懷中已失之矣

송나라 남천 신왕시아비 섬기믈 불효ᄒᆞ는지라 그아비 분ᄒᆞ믐을 니긔지 못ᄒᆞ여 관가의 하리려 나가거늘 왕시 돈 두냥을 가지고 좃ᄎᆞ오며 불너 왈 일노 ᄇᆡ 지필의 소입을 삼으라 ᄒᆞ며 아비의 품속의 더지고 가거늘 기뻐 더옥 비분ᄒᆞ여 힝ᄒᆞ더니 문득 뇌졍이 ᄃᆡ작ᄒᆞ고 큰비 오는지라 인가를 ᄎᆞᄌᆞ 피우ᄒᆞ더니 드르니 그아들이 ᄀᆞ ᄆᆡ 뇌졍의 죽엇다 ᄒᆞ거늘 도라와 본즉 그돈이 아들의 허리의 이셔 살과 ᄒᆞᆫ ᄃᆡ 년ᄒᆞ엿고 레품의 잇던 그돈은 간ᄃᆡ 업더라

宋弘

漢湖陽公主新寡光武與論朝臣微觀其意主曰宋公威容德器羣臣莫及光武曰方且圖之後弘被引見光武令公主坐屏風後因謂弘曰諺言貴易交富易妻人情乎弘曰臣聞貧賤之交不可忘糟糠之妻不下堂光武顧謂公主曰事不諧矣弘位至大司空夫婦偕老

한나라 호양공쥐시로 과부되미 광무황제 공쥬로 더부러 조정인물을 의논ᄒᆞ여 그ᄯᅳᆺ잇ᄂᆞᆫ곳을 슬며시 보려ᄒᆞᆫ디 공쥐ᄀᆞᆯ오ᄃᆡ 송공의 위엄과 용모와 덕스러온 ᄀᆞᆯ으시모ᄃᆞᆫ 신하의 당ᄒᆞᆯ지 업다ᄒᆞ니 광무ᄀᆞᆯ으샤ᄃᆡ 나장ᄎᆞᆺ도 모ᄒᆞ리라 ᄒᆞ시고 그후의 송홍을 불너 입시ᄒᆞ시 실시 공쥬를 명ᄒᆞ여 병풍ᄃᆡ희 안ᄌᆞ ᄃᆞ르라 ᄒᆞ시고 인ᄒᆞ여 홍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상말의 날ᄂᆞᆺ시되 귀호미 벗을 밧고 ᄌᆞ부호미 처

를밧곤다ᄒᆞ니사ᄅᆞᆷ의상졍이ᄀᆞ러ᄒᆞ랴ᄒᆞ신ᄃᆡ홍이ᄃᆡ
왈신은듯ᄌᆞ오니빈쳔의벗ᄉᆞ은가히잇지못ᄒᆞ고조강의
쳐ᄂᆞᆫ당의ᄂᆞ리지아니ᄒᆞᆫ라ᄒᆞ더이다ᄒᆞ니광뮈ᄀᆞᆺ을알
으시고공쥬를도라보아ᄆᆞᄅᆞ샤ᄃᆡ날이되지못ᄒᆞ엿ᄉᆞ라ᄒᆞ
시더라그후홍의벼ᄉᆞᆯ이ᄃᆡᄉᆞ공의ᄂᆞᄅᆞ고부뷔ᄒᆡ로ᄒᆞ니
라

劉庭式

劉庭式旣定婚入太學越五年登第及歸前女已瞽庭式擇日成禮女家不可曰廢人不堪奉箕箒庭式曰喪目於定婚之後義何可棄竟娶之夫婦相敬如賓生二子及式爲倅高密女以疾卒式哀哭不已時東坡爲太守慰之因曰哀生於愛愛生於色子娶瞽女愛從何生式曰吾知妻亾哭妻不知有目無目緣色生愛色衰愛絶非所敢聞東坡撫其背曰眞丈夫也所生二子皆登上第

뎃적의뉴정식이란사람이혼인을정ᄒᆞ고ᄃᆡᄒᆞ의들어공부ᄒᆞ여오년만의급제ᄒᆞ고도라오니그녀지병들어폐명ᄒᆞ여ᄉᆞ로지라정식이ᄃᆡᄒᆞ일ᄒᆞ여성혼ᄒᆞ려ᄒᆞᆫᄃᆡ그녀ᄌᆞ의집의서폐인이라ᄒᆞ여불감ᄒᆞᆷ을날ᄀᆞᆺ고혼인을ᄉᆞ양ᄒᆞ거ᄂᆞᆯ정식이ᄀᆞᆯ오ᄃᆡ눈을상ᄒᆞᆷ이정혼ᄒᆞᆫ후라엇지

가히 보리ㅣ오 ᄒᆞ고 맛춤ㅣ 취ᄒᆞ니 부뷔 셔로공경ᄒᆞ기를
손님ᄀᆞ치ᄒᆞ ᄌᆞ고 두아ᄃᆞᆯ을 나ᄒᆞ야 더라 그후 정식이고
밀 ᄌᆞ 희원이 되ᄆᆡ 그녀ᄌᆞ 병들어 죽은지라 정식이 슬피
울믈 마지아니 ᄒᆞ더니 이ᄉᆞ 소동패 위문 ᄒᆞ고 인ᄒᆞ여 ᄀᆞ로
ᄃᆡ 무릿슬 푸문 ᄉᆞ랑으로 조ᄎᆞ 나고 ᄉᆞ랑은 식으로 조ᄎᆞ 나
ᄂᆞᆫ 비라 그ᄃᆡ 논문 먼녀ᄌᆞ를 취ᄒᆞ 엿시니 ᄉᆞ랑이 어ᄃᆡ로 조ᄎᆞ 낫
ᄂᆞ고 정식이 ᄀᆞᆯ오ᄃᆡ ᄂᆡ 다만 처의 죽음으로 처ᄅᆞᆯ 위ᄒᆞ여 슬
허 ᄒᆞᆯ ᄲᆞᆫ이요 그ᄂᆞᆫ 의 유무ᄂᆞᆫ 알ᄇᆡ 아니라 또ᄒᆞᆫ 식으로 조ᄎᆞᄉᆞ
랑이 날진ᄃᆡ 식이 쇠 ᄒᆞ면 ᄉᆞ랑이 ᄲᆞᆫ 칠지니 이런 날은 감
히 듯지 못ᄒᆞᆯ 비로소 이다 ᄒᆞ니 동패 그등을 어루만져 왈 진
짓ᄃᆡ 쟝부로다 ᄒᆞ 더라 그후 두아ᄃᆞᆯ이 라 졔일 노등라 ᄒᆞ
니라

滿少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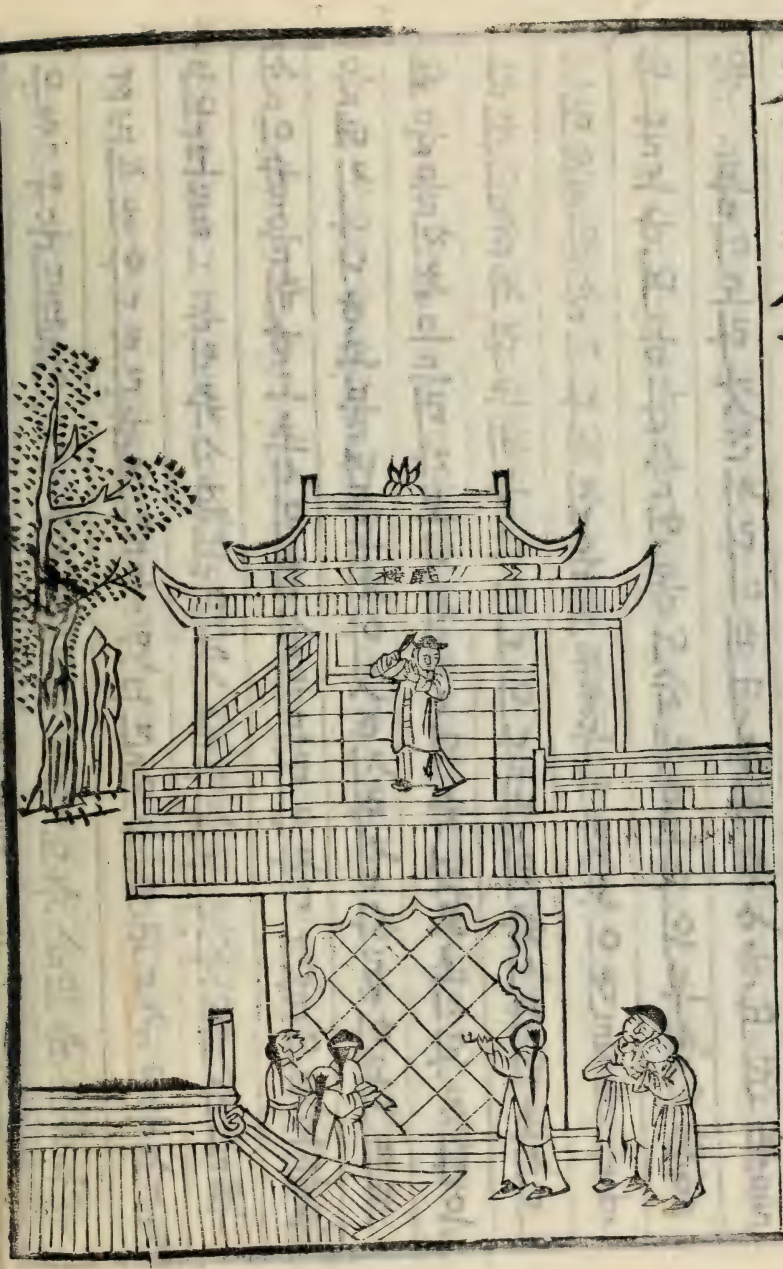
滿少卿淮南望族落魄遠遊飢餓旅舍鄰窆焦大郎憐而飯之生感詣謝自是杯酒親昵遂通其室女事露大郎叱之雖悔無及遂贅爲壻供其誦讀夫婦相得甚歡居二年登第歸拜酬謝盡禮及調官謂妻曰我得官便迎翁與汝既選東海尉便道過家其叔強爲娶朱從簡大夫女女既美好裝奩更厚遂棄焦氏以門戶衰微且亂始也絕不相聞者二十餘年累官鴻臚卿出知晉州散步後堂見焦氏自右舍出泣曰一別廿年略不垂念眞忍人也生以實告焦曰今吾父已死兄弟不肖無所依棲千里相投汝既有佳偶吾願充側室前事不必較也言畢長慟生以語朱氏朱欣然迎歸越宿生微醉詣其室寢明日門不啓呼之不應破門而入生已死於地焦氏與青衣皆不見是夕朱夢

焦曰滿生受我家厚恩負心至此吾飲恨而死父亦抱怨
而亾今申訴幽府方獲報怨朱驚寤護喪南歸
만소경이라ᄒᆞ는사람은회람ᄭᆞ갑족이니일즉뉴락ᄒᆞ
여멀니단닐시호구ᄒᆞᆯ도리업ᄂᆞᆫ지라일ᄉᆞ은쥬리미심ᄒᆞ
여술막의눕고니지못ᄒᆞ거ᄂᆞᆯ니웃집늘그니초ᄃᆡ랑이보
고불상이넉여밥을가려먹엿더니싱이감격ᄒᆞ여나
아가샤례ᄒᆞ고ᄃᆞᆫᄃᆞ여친밀이단니더니일ᄒᆞ여ᄃᆡ랑의녀아로
더부러ᄉᆞ통ᄒᆞ니ᄃᆡ랑이노ᄒᆞ여쓰지ᄌᆞ나ᄒᆞᆯ일업셔ᄃᆞᆫᄃᆞ여
녜ᄅᆞᆯ날ᄋᆞᆺᄉᆞ회ᄅᆞᆯ삼으니부뷔심히샹득ᄒᆞᆫ지라일노좃ᄎᆞ
글공부ᄒᆞᆷ을지극히권면ᄒᆞ여이에머ᄆᆞᆫ지이년후의과거
의나아가진ᄉᆞ급제ᄒᆞ고도라와초옹의덕을감샤ᄒᆞ며그
쳐ᄃᆞ려닐ᄋᆡ왈ᄂᆡ이제샹경ᄒᆞ여반ᄃᆞ시벼슬을엇을거시

니맛당이악장과그딕를마자가리라ᄒᆞ더니이뫼동히ᄋᆞ
를ᄒᆞ여고을노갈시길이쳐의집을지ᄂᆞ는지라그아ᄌᆞ비
강쳔ᄒᆞ여ᄉᆡ부쥬종간의ᄯᆞᆯ과혼인ᄒᆞ니그녀ᄌᆡ이ᄆᆡ아름
답고또ᄌᆞ장이만흔지라ᄃᆞᆫᄃᆞ여초시를ᄇᆞ라니그문회쇠ᄆᆡ
흠을혐의ᄒᆞ고또쳐음만나ᄆᆡ예아니라ᄒᆞ여인ᄒᆞ여ᄉᆞᆫ
코ᄉᆡ로통치아니ᄒᆞᆫ지ᄉᆞ십년이되엿더라그후ᄇᆡ술을도
도아홍노경을지니고또ᄃᆡᆫ쥬ᄅᆡ쉬되여이ᄆᆡ도임ᄒᆞ고일ᄌᆞ
ᄋᆞᆫ후랑의ᄉᆡ껸날더니초시우편집으로ᄉᆡ나아오며을
어알ᄒᆞᆫ번니별ᄒᆞ연지ᄉᆞ십년의조곰도ᄉᆡᆼ각흠이업ᄉᆞ
니진ᄌᆞ모진사름이로라ᄒᆞ건늘ᄉᆡᆼ이실ᄉᆞ로ᄇᆡᆨ고ᄒᆞ니초시
알이ᄎᆡ나의부뫼이ᄆᆡ쥭고형데불초ᄒᆞ여의지ᄒᆞᆯ곳이
업ᄂᆞᆫ지라쳔니를발섭ᄒᆞ여이ᄆᆡ투락ᄒᆞ엿더니그ᄃᆡ이ᄆᆡ

아름다온빈필이잇ᄂᆞᆫ지라원컨ᄃᆡ머물ᄂᆡ즉실의츙슈ᄒᆞ고쳔ᄉᆞ
ᄂᆞ교제치아니리라ᄒᆞ여말을맛고길이슬허ᄒᆞ니싱이쥬시ᄃᆞ려
그연고를ᄂᆡ른ᄃᆡ쥬시흔연이초실를마자도라와ᄉᆞᆫ더니슈일후
싱이슐을취ᄒᆞ고초시의침실의드러가자더니날이ᄂᆞᆺ도록문
을녀지아니ᄒᆞ고불ᄂᆡ도응치아니ᄂᆞᆫ지라집사름이고이히녁
ᄭᆡ문을ᄭᆡ치고드러가보니싱이ᄭᆡ미쥭엇고초시와ᄎᆞ환은
간ᄃᆡ업ᄂᆞᆫ지라크게놀나더니이날밤의쥬시꿈의초시ᄂᆡ
르러왈만싱이나의집은혜를후이밧고이러ᄃᆞᆺ비반ᄒᆞ
여날ᄂᆞ ᄒᆞ여곰한을먹음어쥭게ᄒᆞ고나의부친이또ᄒᆞᆫ
원을품어도라갓ᄂᆞᆫ지라이제명부의송ᄉᆞᄒᆞ여적원을
갑ᄒᆞᆫ소라ᄒᆞ더라

李司鑑



康熙五年永年縣舉人李司鑑首勒死妻王氏又打死妻李氏次唬死妻張氏自認抵償監候一日聽讞過市中忽奪屠刀自詣城隍廟戲樓上口稱城隍罪罰你不該聽信鄉黨是非令割去耳朶卽自割其兩耳擲於樓下又責罰你不該詐人錢財令去其指卽去其左手二指擲於樓下又責罰你不該奸淫人婦女令割去腎囊卽割擲於樓下當卽昏迷家人擡回事見邸報

강희오년의영년고을에사는신비니스감이란자는본성이흉험흉고교스흐여일즉삼쳐를술히흐엿는지라일ᄉᆞ은적저로진ᄂᆞ가더니홀연이빅졍의갈을아ᄉᆞ가지고셩황묘누우희올나스ᄉᆞ로날으되셩황묘신령이너를죄쥬ᄂᆞ니네어이남의그른말을밋어

고지듯는고그죄가히귀를버히리라ᄒᆞ고제귀를버혀
누아리로ᄂᆞ리치고ᄯᅩ를오ᄃᆡ네어이사름의지물을간
ᄉᆞ히속여취ᄒᆞᆫ라그죄가히손을버히리라ᄒᆞ고좌편손
가락둘을버혀누아리ᄂᆞ리치고ᄯᅩ를오ᄃᆡ네어이남의
부녀를음난ᄒᆞ뇨그죄가히신낭을버히리라ᄒᆞ고
제신낭을버혀누하의ᄂᆞ리치고인ᄒᆞ여혼도귀ᄭᅳᆯᄒᆞ
니이날이조보의오르니라

校尉鄰婦

洪武中京師一校尉與鄰婦通一日校瞰其夫侵晨出直入門登床夫忽復歸校伏床下其夫曰吾見天寒恐爾冷回來爲爾加被耳夫去校念曰彼愛妻如此何忍負之與我淫耶以佩刀殺婦而出曉有賣菜翁入門鄰人執以聞官誣服成獄將棄市校登場大呼曰某妻是我所殺監斬者奏聞其故校曰婦頗美某實與通因聞其夫語某恨此婦負夫一時義氣激發遂殺之某不敢欺願賜某死太祖曰殺一不義生一無罪可嘉也並釋之

홍무년간의경스의호장교잇서니웃계집을수동
호엿더니일ᄉᆞ은그지아비ᄂᆞ감을보고가마니드러가상
의오르더니이서날이ᄎᆡᆫ보리지아니호엿ᄂᆞᆫ지라그
지아비나간지오리지아니호여도로드려오거ᄂᆞᆯ장교

놀나상아리슘엇더니 그지아비쳐드려날너왈너나
가다가날이칭우믈보고네답훈거시열우믈로버치엿
흘가념려흐여도로왓노라 흐고이불을드리여더
덥허쥬고가건늘장괴이말을듯고싱각흐되제지아
비그쳐를ᄉᆞ랑흠이ᄀᆞ러듯지극흐거늘그듯을져ᄇᆞ리
고날을ᄉᆞ동흐니의업ᄂᆞ제집이로다흐고드여찻던
칼을ᄲᅵ여그제집을쥭이고도라가니라날이ᄇᆞᆯ이ᄆᆡ
동니의나물파는늘그니그집의드러갓더니ᄀᆞᆺ사름
이잡아살인흐엿ᄉᆞ라흐여고란흐니ᄉᆞ로발명이
못흐여이ᄆᆡᄌᆞ복흔지라장ᄎᆞ져지의ᄂᆡ여버히랴흐
ᄉᆡ그장괴ᄃᆞ라드러크게웨여왈그제지ᄇᆞ쥭인ᄌᆞ는ᄂᆡ라
흐거늘감참관이그연고를무르니장괴ᄃᆡ흐여ᄀᆞᆯ

오디겨제집이ᄌᆞ못아름답길로ᄂᆡ쩔노ᄃᆡ부러ᄉᆞ통
ᄒᆞ엿ᄉᆞ더니그날밤의그지아비의말을듯고그계집의
그지아비겨ᄇᆞ리물분노ᄒᆞ고일시의괴겨발ᄒᆞ여쥭
엿ᄉᆞ오니원컨ᄃᆡ날노ᄡᅥᄃᆡ술ᄒᆞ고무죄ᄒᆞᆫ사름은상
히오지말으소서ᄒᆞ니상이드ᄅᆞ시고글으샤ᄃᆡᄒᆞᆫ불의
지인은쥭이고ᄒᆞᆫ무죄ᄒᆞᆫ사름을술ᄂᆡᄂᆡ가장아람
답다ᄒᆞ시고다노ᄒᆞ시니라

鄂州夔人

夔人寓鄂州蒸孀婦奩橐紿以無妻娶之歸其妻妬悍佯
與厚密取斷腸草置酒中飲孀婦以死死十七年而其人
復娶一妾寵之妻妬如故有道士至其家指曰冤家合一
處矣人不解其言居未幾妾亦以斷腸草漬入酒中勸妻
飲夫不察亦飲之夫婦皆死妾與一婢焚其居挈千金而
逃道士乃言妾乃孀婦後身也年正十七

녯적의기ᄃᆞ사ᄅᆞᆷ이악쥬ᄃᆞ히우거ᄒᆞ여그것집과부의
지물이ㅣ시믈ᄒᆞᆷᄒᆞ고ᄯᆞᆫ지식을ᄉᆞ모ᄒᆞ여속여니로ᄃᆡ
안ᄒᆡ업다ᄒᆞ고취ᄒᆞ여도라온즉그ᄎᆡ잇서투귀ᄒᆞ고ᄉᆞ
오나와것ᄎᆞ로후ᄃᆡᄒᆞᄂᆞᆫ쳬ᄒᆞ고안ᄒᆞ로칼을품엇ᄂᆞᆫ
지라일ㅣ은그ᄎᆡ가마니단장초라ᄒᆞᄂᆞᆫ독약을술의
풀어그계집을먹여죽엿더니그후십칠년만의

그지아비ᄃᆞ시ᄒᆞᆫ쳠을취ᄒᆞ여심히ᄉᆞ랑ᄒᆞ니그쳬또ᄒᆞ
ᄀᆡ ᄒᆞ기를마지아니ᄒᆞ거ᄂᆞᆯᄒᆞᆫ도ᄉᆞ집의ᄂᆡ러보고ᄂᆞᆯ
ᄂᆡ와ᄅᆞ원슈ᄭᆡ리ᄒᆞᆫ집의모혓ᄃᆞ ᄒᆞ니사ᄅᆞᆷ이그ᄉᆞᆺ을
아지못ᄒᆞ더니오ᄅᆡ지아니ᄒᆞ여그쳬ᄇᆡ이또ᄒᆞᆫ단장초
ᄅᆞ슐의ᄂᆡ허그쳬ᄅᆞ권ᄒᆞ여먹이니그지아비독약
인ᄌᆞᆯ아지못ᄒᆞ고또ᄒᆞᆫ먹으ᄆᆡ부쳬일시의죽은지
라그쳬ᄇᆡ이ᄭᆞ의그집을불지르고쳔금가샨을거두어
가지고도망ᄒᆞ여가니라도ᄉᆞ그제야말ᄒᆞ여ᄀᆞᆯ오ᄅᆡ이
ᄂᆞ그쳬음어덧든과부의후신이라그나히겅히
십칠세니과부의죽던ᄒᆡ의나ᄆᆡ러라

厲氏

南宋厲氏餘杭大族女嫁四明曹秀才與夫不相得仳離而歸再適曹詠詠時爲武弁不數年以秦檜姻黨易文階驟擢至徽猷閣出守鄞元夕張燈州治合樂宴飲曹秀才攜家來觀見厲氏服用精麗左右供侍備極尊嚴謂其母曰渠合在此中居享富貴吾家豈能留數息久之詠日益顯爲戶部侍郎秦檜死詠貶新州亦死厲氏領二子取喪歸二子不肖家貧日甚至於析乞朝夕不給有姻親趙德憐其孤老養於四明厲氏間出過故夫曹秀才家門庭不改花竹蕃茂嘆曰我當日能自安於此豈有今日因泣數行不止

남송의 여시는 여항 사람이라 그 집녀자 소명 사조 수지의 게시집갓더니 그지아비도 더부러 불합하여

리고도라가ᄂᆞ시조영의게ᄉᆡ집가ᄂᆡ조영은본근이
무변이라진회의친척되므로형세를힘ᄂᆞᆷ어
문관계제를밧고아시힝ᄒᆞᆫᄂᆡ즈레승락ᄒᆞ여흰유
각ᄡᅧ술노근쥬를직희게ᄒᆞᆫᄂᆡ이ᄭᅴ상원가절이라
관가의큰잔치를ᄇᆡ설ᄒᆞ고종야를관등ᄒᆞ여
즐기ᄂᆞᆫ지라이ᄭᅴ조슈지가권으로더부러ᄀᆞᆺ보더니
녀시의복을화려히ᄒᆞ고단장을성히ᄒᆞ며좌우의
시위ᄒᆞᆫ지무슈ᄒᆞ여극히존귀ᄒᆞ고엄중ᄒᆞᆫ지라조
슈지그모친을향ᄒᆞ여왈져녀시녀지이런곳ᄭᅴ잇ᄭᅴ
부귀들누리ᄅᆞᆯ사ᄅᆞᆷ이라엇지즐겨우리집의머물
니오ᄒᆞ고단식ᄒᆞᆷ을마지아니ᄒᆞᆫ더라이ᄭᅴ조영이
날노현달ᄒᆞ여호부시랑을ᄒᆞ엿더니ᄆᆡᆺ진회

쥭으미영이또훈귀향가쥭은지라 뎌시무아들을드리고치
상훈여도라온후그두아들이불초훈고집이졈ㅣ갈ᄉᆞ훈
기심훈여비로여먹기의니로니조셕이능히ᄃᆡᄃᆡ지못훈지라
연인훈친척도덕이라 훈ᄂᆞᆫ사람이ᄉᆞᆺ셔그ᄂᆞᆯ리고쥬리믈
불상이너겨마ᄌᆞ도라와ᄉᆞ명ᄭᅳᆺ히ᄉᆞᆯ더니녀시마초아녜ᄉᆞ
지아비조쥬지의집을지날ᄉᆡ그문졍이졍결훈고ᄭᅳᆺ과
ᄃᆡ슈풀이무셩훈여의연이녜ᄀᆞᆺ훈지라단ᄉᆡᆨ훈여를
오ᄃᆡ니랑년의이집의안ᄀᆞ훈엿던들엇지오ᄂᆞᆯ날
이지경의니르리오훈고인훈여눈물ᄂᆞ리옴을마지
아니훈더라

蕭修撰

蕭修撰與成弟光祿公與潔甚相友愛年五十猶同爨所
營悉出公不以煩光祿諸子婚畢乃爲光祿繕第宅舉公
業均與之光祿謂兄子凡六而已子止二不欲使二人均
六人之業辭不受公曰先君之愛若猶我也我知弟與我
一體不知其他讓而弗波請於其母太夫人母命十以四
與光祿乃止後二公俱陟顯仕子孫義讓不衰

요슈찬의일홈은여성이니그아우광녹공여걸노더부
러극히우의ᄒᆞ여나히오십이넘도록ᄒᆞᆫ집의거ᄒᆞ니일
용지물을공이다스ᄉᆞ로당ᄒᆞ고광녹의게이우치아니ᄒᆞ
더니여러ᄌᆞ녀를필혼ᄒᆞᆫ후광녹공을위ᄒᆞ여집을세
우고가샨을가져분반ᄒᆞ여광녹을쥬니광녹이ᄀᆞᆯ
오ᄃᆡ형은뉘ᄌᆞ를두고나는이ᄌᆞ샨이라엇지두사람

의세간이여섯사람의세간과갓치흐리오흐고스양
흐여밧지아니흐니슈찬공이로오되우리셔군의녀
를스랑흐시미날과갓흐신나는나의아우가날노더
부러갓흔줄만알고그나마는아지못흐노라흐여셔로
스양흐고결단치못흐여티부인긔청흐니티부인이
명흐여십분의스로써광녹을쥬게흐니라그후의공
의형뎨모다현달흐고자손이창셩흐여겸양지풍이
쇠티아니흐니라

元德秀

元德秀貧時其兄早亡有遺孤期月其嫂又喪無乳哺之德秀晝夜哀號抱其兄子卽以己乳含之涉旬日而乳遂有汁兒得長大

원덕슈라ᄒᆞᆫ는 사ᄅᆞᆷ이 일ᄌᆞ가 난ᄒᆞ더니 그 형이 잇ᄉᆞ셔 죽고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형쉬 또ᄒᆞᆫ 죽은지라 어린 조ᄒᆡ 잇ᄉᆞ니 젖먹이ᄅᆡ 엄ᄉᆡ 장ᄎᆞᆺ 죽ᄀᆞᆺ 되엿거ᄂᆞᆯ 더쉬 불상이 넉여 그 아희ᄅᆞᆯ 안고 쥬야로 슬피 울며 ᄭᆡᄃᆞᆺ 술 ᄲᆞᆯ니 더니 십일이 되ᄆᆡ 젖시 나는지라 일노 ᄇᆡ아 희장 성ᄒᆞ니라

趙彥霄

趙彥霄兄彥雲好遊生業廢半彥霄諫不聽遂求分產五年而兄費盡除夕霄置酒語兄曰弟初無分爨意以兄不節特爲兄守先業之半亦足以供朝夕請歸仍主家政卽取分券焚之更出已蓄以償兄債次年霄與長子俱登鄉薦

丘언쇼란사름이형언운으로더부러동거흐더니형이오입흐기를쇼하흐여싱업을젼폐흐거늘언쇠간흐되듯지아니흐는지라드듸여가샨을난화각거흐여ᄉᆞ더니오년이되ᄆᆡ형의가샨이다진흐는지라일ᄉᆞ은쥐석을당흐여언쇠술을장만흐고형데마시더니형ᄃᆞ려말흐여ᄀᆞᆯ오ᄃᆡ소데본ᄃᆡ세간난홀ᄆᆞ음이업서시되다만형이지물을앗기지아니흐시ᄆᆡ특별이

형으로의 ᄒᆞ여그반을직희ᄋᆞᆺᄉᆞ오니 ᄯᅩᄒᆞᆫ족히의식이넉
넉ᄒᆞᆯ지라 ᄒᆡᆼ귀ᄃᆡ 형은도로가지고 ᄀᆞᆯ용ᄒᆞ여가ᄉᆞ를니
루미맛당ᄒᆞ이다 ᄒᆞ고분지ᄒᆞᆫ문셔를불의ᄉᆞ를으고 ᄯᅩᄉᆞ
천으로너여 형의비ᄌᆞ를갑ᄒᆞᆺ더니 명년의언쇠맛아들
노더부러ᄒᆞᆫ가지로향천ᄒᆞ니라

鄭昭先之祖

宋鄭昭先之祖長樂人弟嘗殺人抵死祖憫然曰弟未有子吾當代之自首於官竟死囹中弟出不報兄德反凌孤寡其子乃攜母賣酒嶺上母死遇一異人指山下地曰白羊眠處鷓鴣啼此貴穴也五世出宰相其子覓至一處果值羊起鷓鴣忽鳴因停其柩天大雨湧沙擁棺果生孫昭先官至平章

송나라 셔의 당쇼셔의 조부는 장낙 ᄉᆞ사람이라 그아우ᄋᆞᆫ 셔살인ᄒᆞ고 ᄃᆡ살ᄒᆞ기의 니ᄅᆞ니 쇼셔의 조뷔 민망이 녁여 왈 아ᄋᆞᆫ 나히어리고 또 조식이 업스니 ᄂᆡ 맛당이 ᄃᆡ신ᄒᆞ리라 ᄒᆞ고 인ᄒᆞ여 스스로 관가의 나아가 맛ᄌᆞᆷ ᄂᆡ 옥중의 죽으니라 그아ᄋᆞᆫ 형의 덕을 갑지 아니ᄒᆞ고 도로혀 어린 아들과 형ᄉᆞᆫ 을 구박ᄒᆞ니 그아ᄋᆞᆫ 희어 미ᄅᆞ 다리고

산의올나가길가의서술을팔아연명ᄒᆞ더니기뫼
죽은지라ᄒᆞᆫ이인을만나니ᄆᆞᆯ러와ᄃᆞᆯ이산아리ᄒᆞᆫ
양이누엇고자고서우ᄂᆞᆫ곳이곳귀ᄒᆞᆫ혈이니오셰ᄅᆞᆯ정
승이ᄂᆞ리라ᄒᆞ거ᄂᆞᆯ기지ᄂᆞ려가그곳을ᄎᆞᄌᆞ보니과연
ᄒᆞᆫ양이ᄂᆞ러ᄂᆞ며자고서우ᄂᆞᆫ지라인ᄒᆞ여ᄇᆡᆼ구ᄅᆞᆯ슈
운ᄒᆞ여그곳의ᄆᆡᄆᆞᆯ엇더니홀연이급ᄒᆞᆫ비붓드시오며
흙이소ᄉᆞ올나관을덮허무덤을ᄂᆞᆯ웠ᄂᆞᆫ지라그후
손ᄌᆞ쇼션을나흐니벼술이평장ᄉᆞ의니ᄅᆞ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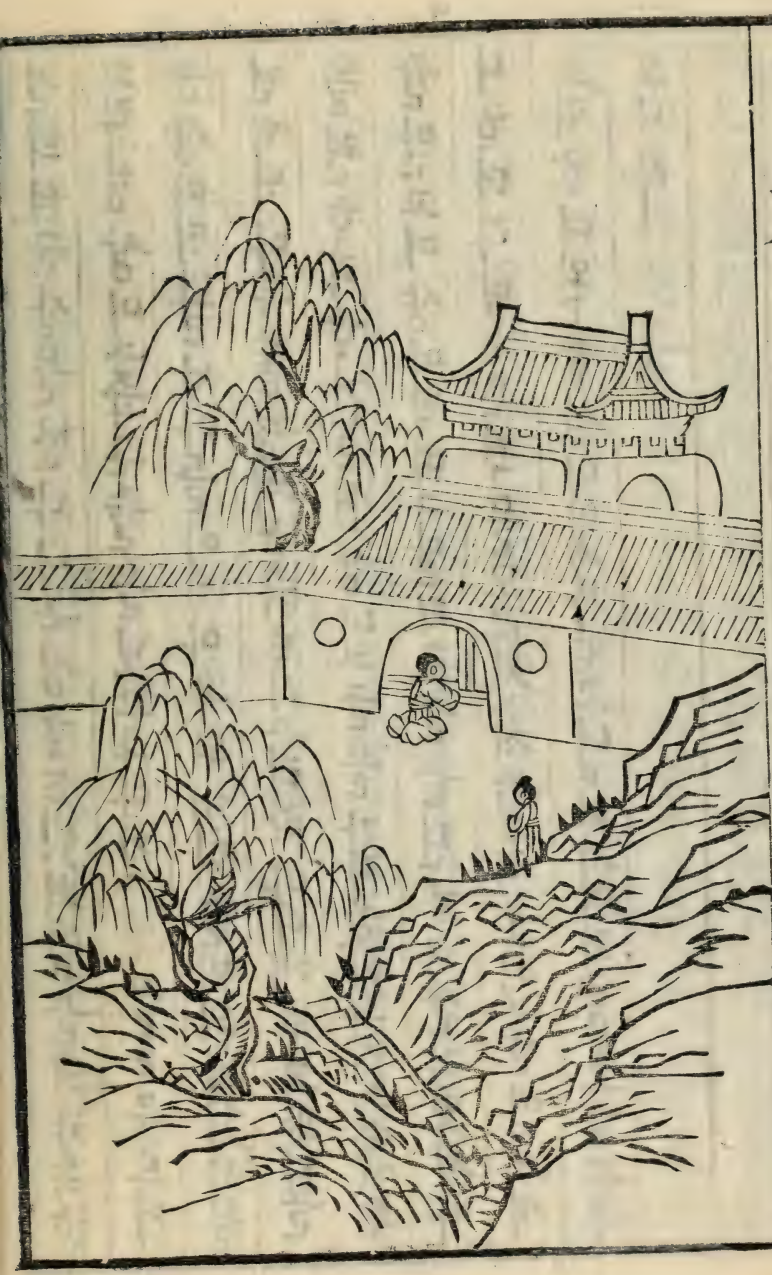
劉君祥

信州劉君祥病將死一子幼謂弟君祺曰我死子幼弟爲我扶植此子成立我在地下決不忘報君祥卒君祺設計逐兄子盡得其產後五年其友張善祥遇君祥於塗憂容可掬善祥問之答曰吾子爲弟所害有書煩爲寄去戒勿復然善祥至家始悟其死以書付之君祺不信一日宴客忽大呼曰君祥來也頓嘔惡血而死

녯적의신쥬신흐뉴군상이라흐사름이잇시니병들어장ᄎᆞᆺ죽을ᄭᅴ그아우군귀드려닐ᄋᆡ왈ᄂᆡ죽고아들이어리니네ᄋᆡ아ᄒᆞᆫ들보호흐여성취ᄭᅦ흐면ᄂᆡ지하의잇셔결단코은혜를갑흐리라흐고군상이죽으니군귀몹슬ᄆᆞ음을ᄂᆡ여형의아들을쫓ᄎᆞᄂᆡ치고그가샨을다가지니라그후오년만의그벗장선상이라흐ᄂᆞᆫ사름이

길의서군상을만나니군심ᄒᆞᆫ빗치얼골의가득ᄒᆞᆫ
지라션상이그쥭은쥴을닛고나아가그연고를무르니
군상이ᄃᆡ왈ᄂᆡ아들이ᄂᆡ아우의게ᄒᆞᆫ비되여ᄉᆡᆫ청
건ᄃᆡ니아우를경계ᄒᆞ여ᄃᆞ시그러지ᄋᆡ게ᄒᆞ고ᄯᆞᄂᆡ글
을젼ᄒᆞ라ᄒᆞ거ᄂᆞᆯ션상이그글을가지고도라와비로소쥭은
쥴알고이상이ᄂᆡ여그말ᄅᆡ로글을젼ᄒᆞ니군ᄀᆡ밋지아
니ᄒᆞ더라일ᄌᆞ은ᄀᆡ을모하잔치ᄒᆞᆯ서군ᄀᆡ홀연크게
소리ᄒᆞ여왈군상이와ᄉᆞ라ᄒᆞ고엎더지며피를토ᄒᆞ고쥭
으니라

陳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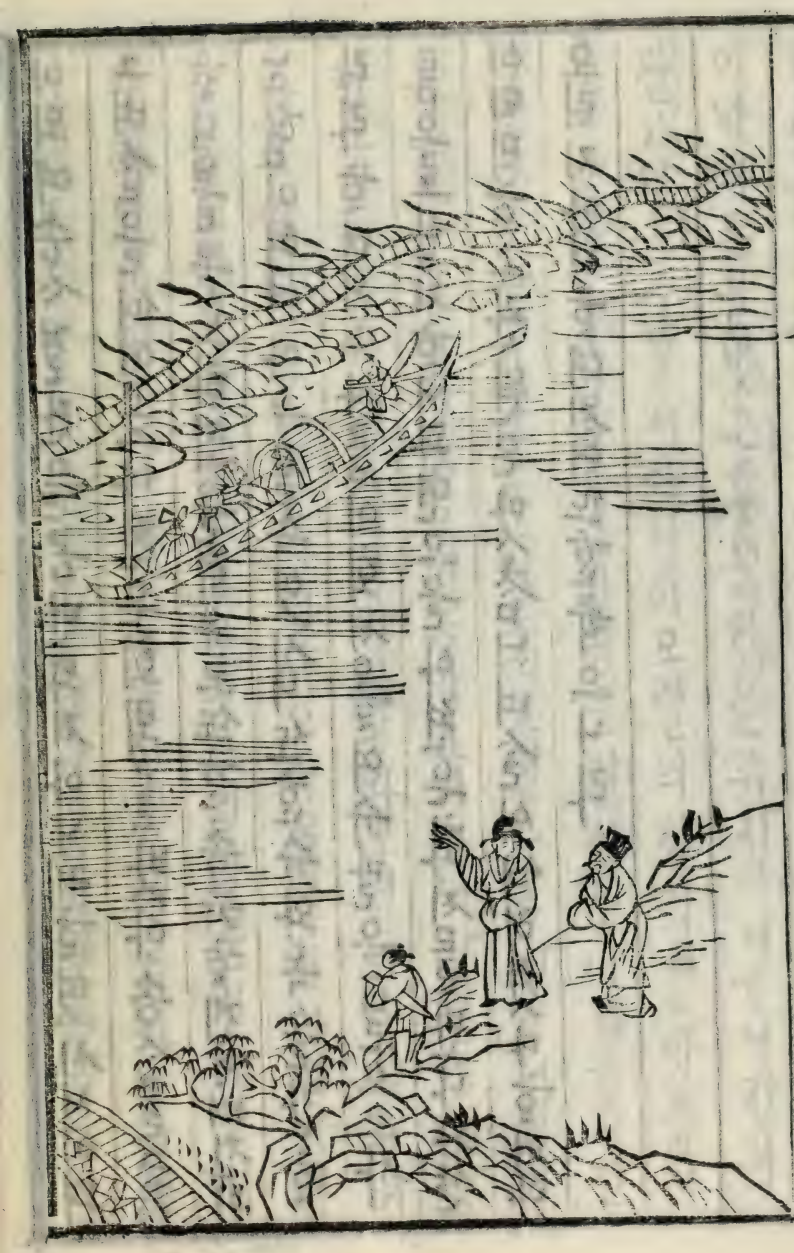
陳祈有幼弟三人慮其壯而均分田產乃先取田私典于
厚友毛烈止以現在產均分然後以錢贖所當田烈知其
故受錢畢竟不與券祈訟於縣官吏受賄據券斷田歸烈
祈飲恨訴之東嶽數日祈與烈皆死共審王前烈惟持券
爲證王指其心曰券何足憑止憑此心耳烈乃伏罪王曰
縣官聽訟不公已黜其官吏受賄者火焚削壽祈以兄剋
弟亦減祿算釋回甦後詢吏果被焚官竟左遷祈未幾死

긧적의진긔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잇시니가샨이가장부요ᄒᆞᆫ
지라어린아우삼인으로더부러ᄒᆞᆫ가지로거ᄒᆞ더니진
긔혜오ᄃᆡ세아ᄋᆡ장성ᄒᆞ면반ᄃᆞ시가샨을ᄀᆞᆺ치난
ᄒᆞ리라ᄒᆞ고간ᄒᆞᆯᄒᆞᆫᄆᆞ음을ᄂᆡ여문적됴ᄒᆞᆫ적ᄌᆞᆼ
문ᄉᆡ로ᄯᅥᆨ사ᄋᆡᄒᆡ졍ᄒᆞ온친구모ᄅᆞᆯ의게적ᄃᆞᆼᄒᆞ고ᄀᆞ

나문가샤을가져니기식난호니라그후진귀돈을가져
쳔당흔쳔장을무를시모렬이그곡절을알고뮈
이넉여돈을밧은후문권을쥬지아니흐니진귀
관가의송소흐을시아젼이모렬의회뢰를밧으관
가의알소흐여쳐결호되죵문권시힝이라흐여진
귀를지우고그젼당문셔로써모렬을쥬게흐니진귀
분흠을니긔지못흐여동악묘의나아가원통흐음을
하로더니두어날이지나미진귀와모렬이흐음ㅁ죽어
왕부앞희송소흐을시렬이오직문셔를가져장침
을숨ㄴ지라왕이그ㅁ음을ㄱ르쳐알문권이엇지
족히빙게되리오다만이ㅁ음이빙게될지라흐니렬
이ㄱ의조복흐ㄴ지라왕이또쳐결흐여왈공을관원

이되여송ᄉᆞ결단을공번되지아니케ᄒᆞ엿시니이의
그벼슬을ᄲᅥ이고그아젼은회뢰를밧아송ᄉᆞ를그릇
ᄒᆞ니불을노하집을ᄒᆞ우고ᄯᅩᄒᆞᆫ촉ᄉᆞᄒᆞ게ᄒᆞ며진괴
ᄂᆞᆫ형이되여아우를속엿시니ᄯᅩᄒᆞᆫ슈와녹을감ᄒᆞ
리라ᄒᆞ더니두사람이회ᄉᆡᆼᄒᆞ여ᄉᆞ말을닐으고사
름으로람지ᄒᆞ니라연고을아젼은화ᄌᆡ를만나갸샨
이되픽ᄒᆞ고관원은맛ᄎᆞᆷ니벼슬이ᄯᅥ러졋다ᄒᆞ더라
오리지아니ᄒᆞ여진괴ᄯᅩᄒᆞᆫ죽으니라

范蠡夫



范文正公常遣子堯夫姑蘇取麥舟次丹陽見故人石曼卿以三喪未葬不得歸盡以麥五百石付之既歸未及言文正曰江東曾見故人否堯夫曰石曼卿爲三喪未葬留滯丹陽文正曰何不以麥舟付之堯夫曰付之矣文正聞而大喜

범문정공이그아들요부로고소ᄉᆞ히보ᄂᆡ여보리ᄅᆞ슈운ᄒᆞ여오ᄅᆞ시그보리실은ᄇᆡ란양ᄉᆞ히니르러ᄃᆡ혓ᄂᆞᆫ지라ᄆᆞᆺ참친구ᄉᆞᆨ만경이ᄅᆞᆯ만나보ᄂᆡ만경이친상을당ᄒᆞ여장ᄉᆞ치못ᄒᆞ므로도라가지아니ᄒᆞ여거ᄂᆞᆯ요ᄇᆡ그보리오ᄇᆡᆨᄉᆞᆨ구ᄋᆞᆯ모도쥬여장ᄉᆞ ᄅᆞᆯ리ᄂᆡ라ᄒᆞ고이ᄆᆡ도라와공ᄉᆡ뵈고ᄆᆡ쳐그ᄂᆡᆯ을고ᄒᆡ못ᄒᆞ여ᄉᆡ공이무러ᄀᆞᆯ오ᄃᆡ네강동의ᄂᆡ르러일즉고인을보앗ᄂᆞ냐못보앗ᄂᆞ

나ᄒᆞ니요뷔ᄃᆡ왈셕만경이삼상을당ᄒᆞ여쟝ᄉᆞ
치못ᄒᆞ고단양의뉴최ᄒᆞ엿더이다ᄒᆞ니공이ᄀᆞᆯ오ᄃᆡ
엇지보리뷔로ᄲᅡ쥬지아니ᄒᆞ엿ᄂᆞ뇨요뷔ᄃᆡ왈이ᄆᆡ
쥬엿ᄂᆞ이라ᄒᆞ니공이ᄃᆞᆺ고크게깃거ᄒᆞ더라

京三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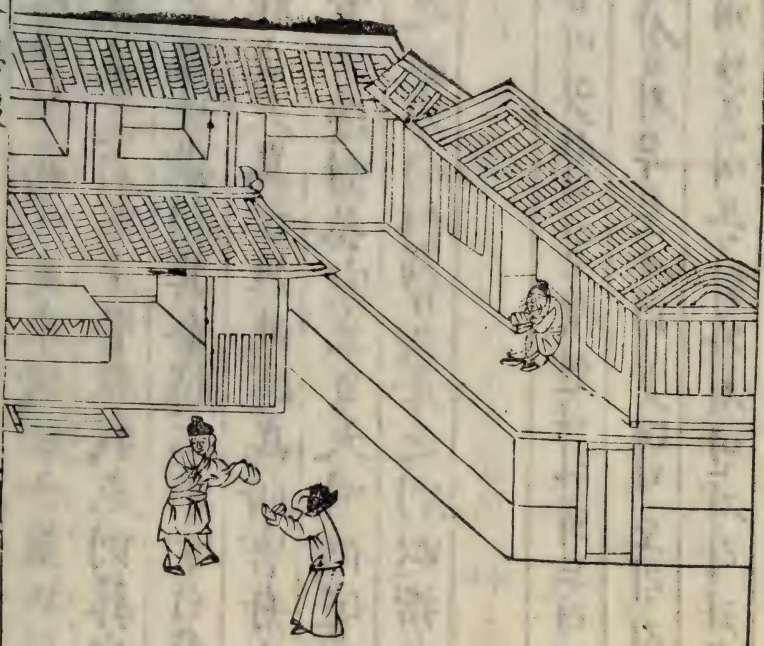
京三郎名德爲人忠信不欺友人病篤慮其子不肖密以千金付之曰我死此子必蕩廢無餘俟其將餓死時然後與之後其子果如父言窮苦至極三郎始召而詰曰爾父有產之家何以至此其子慚而不答三郎曰我有微物惠汝恐汝又費於歌酒也其子指天誓曰若果負君當投以死三郎卽取其父所遺千金與之封記如舊其子泣曰我父死時但云善事京公不意今日獲此足徵死生不變之德也其子改過修善節儉自守三郎三子長仲遠仕至宰相

경삼낭이라 ᄒᆞ는사람의 일홈은 덕이니 의인이 충직ᄒᆞ여 평생의 ᄆᆞ음을 속이지아니ᄒᆞ더니 그친 ᄒᆞᆫ버지 잇서 병이 위중ᄒᆞ여 죽기의 니르니 그아들의 불초ᄒᆞᆷ을

근심ᄒᆞ여 가만이 쳔금으로 ᄡᅥ 삼낭의게 맛지고 부탁ᄒᆞ여
왈 ᄂᆡ 죽은 후의 이 아ᄃᆞᆯ이 반ᄃᆞ시 가샨을 탕픠ᄒᆞᆯ지니 맛
당이 위급ᄒᆞᆫ 위ᄅᆞᆯ 기ᄃᆞ려 일노ᄡᅥ 쥬어 살게 ᄒᆞ라 ᄒᆞ엿더
니 그 후 그 아ᄃᆞᆯ이 과연 그 아ᄇᆡᆨ 말과 ᄀᆞᆺ히여 거의 굴머 죽
게 되엿ᄂᆞᆫ지라 삼낭이 비로소 불너 무러ᄀᆞ로ᄃᆡ 네 부친
의 가샨이 ᄌᆞ못 부요ᄒᆞᆫ 거ᄂᆞᆯ 엿지 ᄌᆞ러 ᄃᆞᆺ 되엿ᄂᆞᆫ고 ᄒᆞ니
기ᄌᆞ 붓그러ᄃᆡ 답지 못ᄒᆞᆫ 거ᄂᆞᆯ 삼낭이 가로ᄃᆡ ᄂᆡ게 약간
ᄌᆞᆫ이 잇ᄉᆡ 너ᄅᆞᆯ 구제ᄒᆞ고ᄌᆞ ᄒᆞ나 네 ᄯᅩ 술과 노ᄅᆡ의 외입
ᄒᆞ여 허비ᄒᆞᆯ가 ᄌᆞ려 허ᄒᆞᆫ 노라 기ᄌᆡ 하ᄂᆞᆯ을 가ᄅᆞ쳐 밋ᄋᆡ
ᄒᆞ여 왈 만일 존공의 말ᄉᆞᆷ을 ᄌᆞᆨ부리 고ᄅᆞ시 죠심치
아니ᄒᆞ면 맛장이 하ᄂᆞᆯ이 죽이시리이다 ᄒᆞᆫ 니 삼낭이
이의 기부의 맛ᄌᆞᆺ 딘 쳔금을 ᄂᆡ여 기ᄌᆞ를 쥬니 그 봉ᄒᆞᆫ

거시그리로잇노지라기지이를보고울어왈우리부친
이남죵의니르시기를경공을잘섬기라ᄒᆞ시더니불
의에이날이잇ᄉᆞ오니죡히ᄉᆞ셩의변치아니ᄒᆞ노ᄅᆞ덕을
알니로라ᄒᆞ고드ᄅᆞ여허물을고치고힝실을닷가ᄉᆞᄉᆞ
로ᄉᆞᆷ가고검박ᄒᆞ여능히가샨을직희오고삼낭의세
아ᄃᆞᆯ의쟝ᄌᆞ중원이벼ᄉᆞᆯᄒᆞ여지샹의니ᄅᆞ니라

漳郡丁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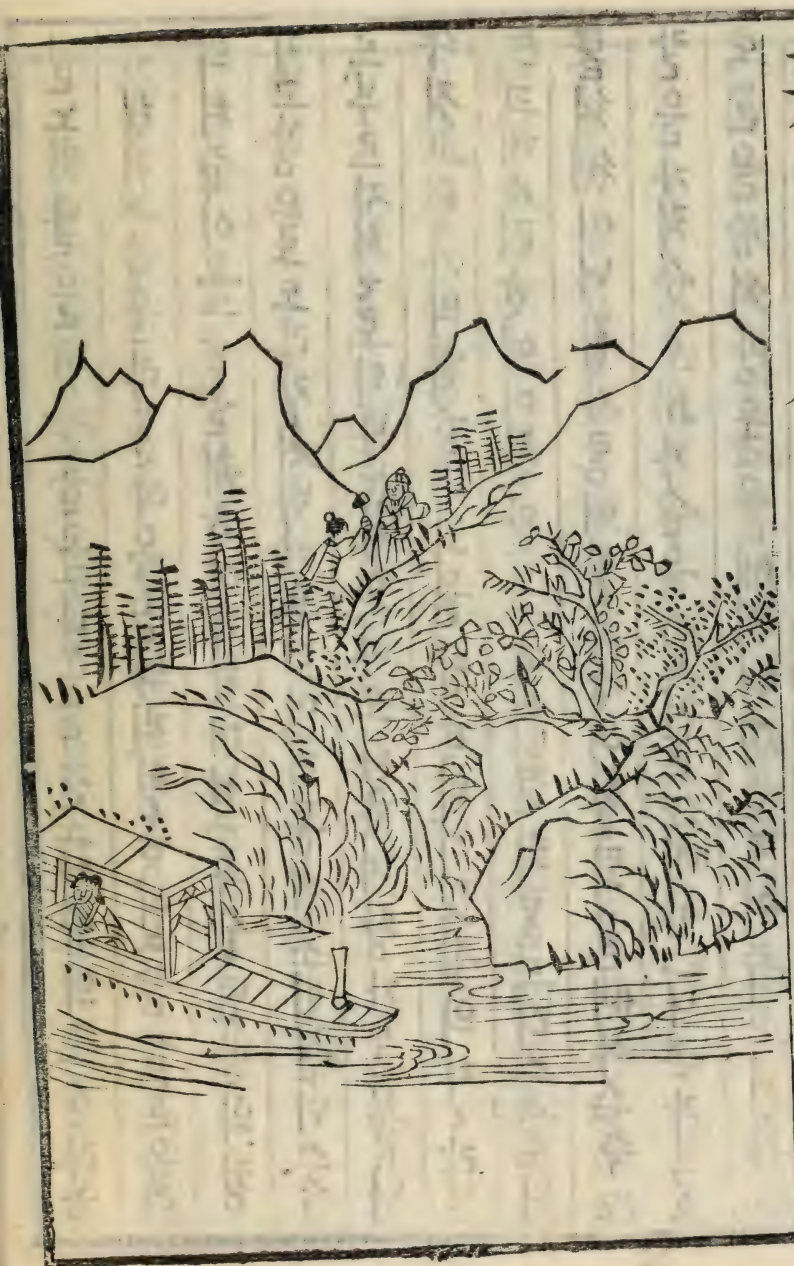


漳郡丁姓遊燕遇一壯士結爲死友未幾壯士盜扳繫獄謂丁曰我有五百金藏某處君取來營救我死則葬我餘金任君取之丁賄獄吏斃之獄利其金越三年丁自燕歸舟中忽自叫我是某壯士大罵丁姓並述爲所害舟人求宥鬼曰唯唯當至其家丁遂甦抵家三日大叫仍述前語取鎚自落齒家人奪之取刀自傷胷又奪之則以指自抉目睛出血流須臾死

장군 ᄯᆞ의 정가 사ᄅᆞᆷ이 잇시니 일ᄌᆞᆨ 연나라의 드러 가ᄂᆞᆯ 세 ᄒᆞᆫ 장ᄉᆞ를 만나 ᄉᆞ신지 우로ᄉᆞ 피ᄒᆞ여 더니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그 장ᄉᆞ ᄃᆞ려 ᄀᆞᆨ의게 ᄂᆞᆺ토여 옥의 가치인 지라 정가 ᄀᆞᆯᆞᆺ ᄃᆡ ᄂᆞᆯ 더ᄀᆞᆯ 오ᄅᆡ니 일ᄌᆞᆨ 오ᄇᆡᆨ금을 아모데 감ᄎᆞ 앗시니 정가 ᄀᆞᆫᄅᆡ 그금을 ᄎᆞᄌᆞ ᄂᆞᆯ을 구ᄒᆞ고 구ᄅᆡ 못ᄒᆞ여 쥭거ᄂᆞᆫ

일노써날을영장ᄒᆞ고그남ᄂᆞᆫ거ᄉᆞᆫ그ᄅᆡ임의로ᄒᆞ라ᄒᆞ
니정ᄀᆡ그금을담ᄒᆞ여옥졸의게청ᄒᆞ여그장ᄉᆞ를오긍
의셔쥭이고그금을취ᄒᆞ여가졋더니그후삼년만의정
ᄀᆡ고항으로도라갈ᄉᆡ비가온ᄃᆡ잇셔홀연소ᄅᆡ질너ᄉᆞᄉᆞ
로부르지져ᄌᆞ로ᄃᆡ나ᄂᆞᆫ장ᄉᆞ아모라ᄒᆞ며정가를불너
ᄭᅮ짓고정가의ᄒᆡᆨᄒᆞᆫ비되믈말ᄒᆞ더니밋집의ᄃᆞᄃᆞ라ᄂᆞᆫ
ᄯᅩ크게소ᄅᆡᄒᆞ여이젼말을ᄒᆞ며ᄎᆞᆯ쵹를ᄅᆞ러ᄉᆞᄉᆞ로니
를쵹ᄲᅵ이니집사람이말뉴ᄒᆞ여ᄎᆞᆯ퇴를ᄲᅵ아ᄉᆞᆫ쥭ᄯᅩ
칼을가져ᄉᆞ로제가ᄉᆞᆷ을지르거ᄂᆞᆯᄯᅩᄲᅵ아ᄉᆞ니손가락으
로눈을쓰셔망울을ᄲᅵ히니피흐르며쥭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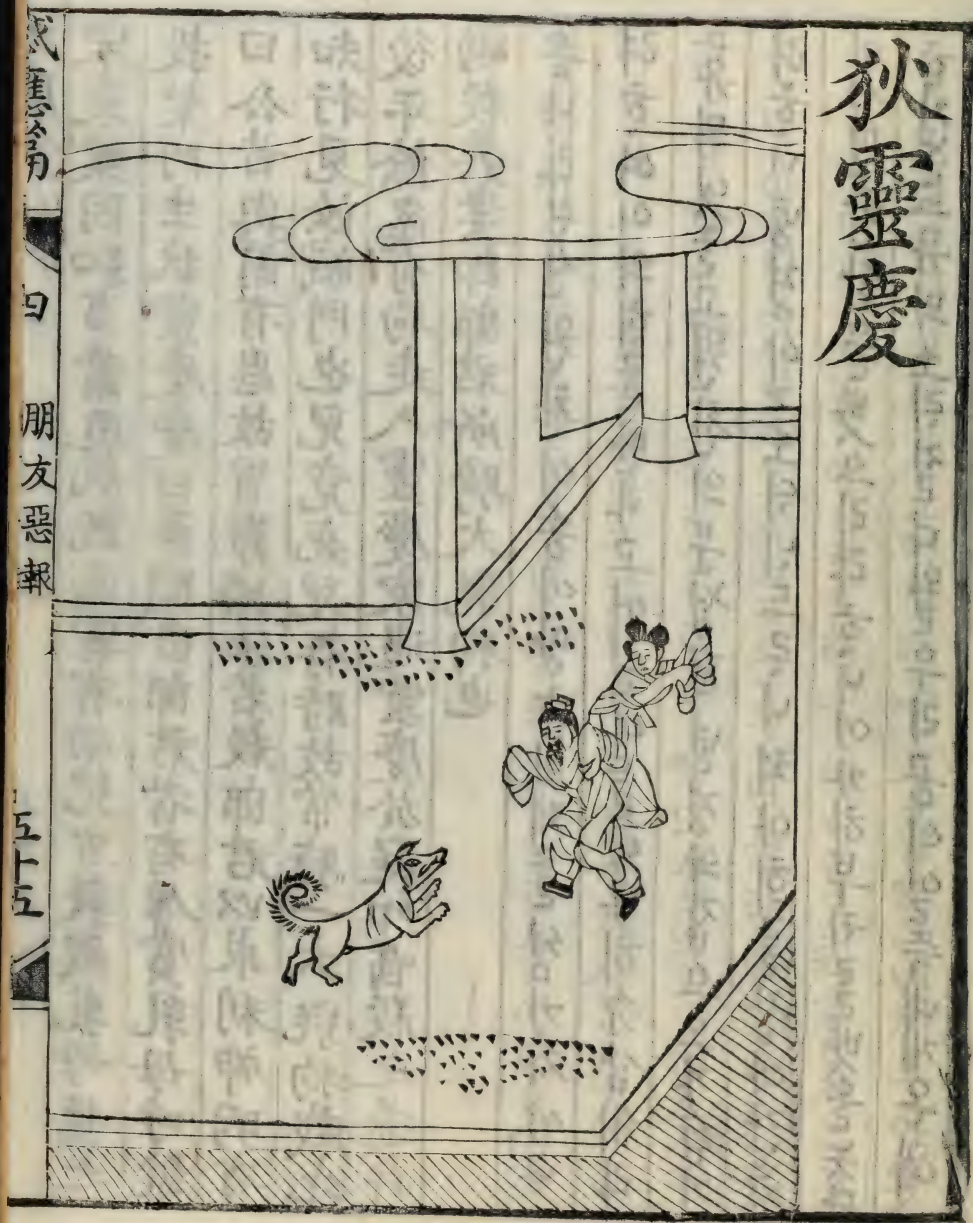
荆溪二人



荆溪有二人幼年相善壯而一豐一窶窶子妻美豐子設謀謂有富家可投生計窶子感謝豐子具舟幷載其妻以行將抵山謂曰留汝妻守舟吾與汝先往引至林中出腰斧斫死佯哭下山謂其妻曰汝夫死于虎婦大哭偕上山又引入深處擁抱求淫忽虎出叢林間齧豐子去婦驚走以夫果落虎口也哭還遙望山中一人哭來駭以爲鬼也至則其夫相持大哭各道其故轉悲爲喜歸于里中

형계쇼히두사람이잇셔ᄀᆞ로친밀ᄒᆞ니ᄒᆞᆫ사람은부요ᄒᆞ고ᄒᆞᆫ사람은간구ᄒᆞᆫ지라그간구ᄒᆞᆫ사람의쳬심히아름답거ᄂᆞᆯ부요ᄒᆞᆫ사람이간계를ᄂᆡ여ᄂᆡ르되ᄒᆞᆫ곳의부지잇스니가히두락ᄒᆞ여싱계를엇으리니ᄂᆡ너를위ᄒᆞ여인도ᄒᆞ리라ᄒᆞ고간구ᄒᆞᆫ사람의부쳐를잇그러ᄇᆡ의오라니간구ᄒᆞᆫ사

름이그덕을감격ᄒᆞ더라힝ᄒᆞ여ᄒᆞᆫ뫼아리ᄃᆞ라간구ᄒᆞᆫ
사람ᄃᆞ려ᄂᆞᆯ너와ᄅᆞ네쳐ᄂᆞᆫ이곳의두어ᄇᆡᄅᆞᆯ직희오라ᄒᆞ
고우리ᄂᆞᆫ몬저가보리라ᄒᆞ여ᄋᆡᆺ글고가다가ᄒᆞᆫ수풀속의ᄃᆞ
러가허리로ᄭᅥ도쳐ᄅᆞᆯᄂᆡ여쳐죽이고기ᄌᆞᆼ울ᄆᆡ도라와그
쳐ᄃᆞ려ᄂᆞᆯ리ᄃᆡ지아비범의게물ᄃᆡ죽다ᄒᆞ니그쳬ᄀᆞᆫ게울
ᄯᅥ ᄒᆞᆫ가지로산의올나갈ᄉᆡ깁ᄒᆞᆫ곳의ᄃᆞ러가붓들고ᄃᆞ리
여즐기물구ᄒᆞ더니홀연ᄒᆞᆫ범이ᄂᆡ다라그놈을물어가거
ᄂᆞᆯ놀나라라나ᄯᅥ혜오ᄃᆡ이곳의범이ᄀᆞ러ᄃᆞᆺᄒᆞ니지아비과
연범의게죽엇다ᄒᆞ더니멀니ᄇᆞ라보니ᄒᆞᆫ사람이울고오
거ᄂᆞᆯ귀신인가의심ᄒᆞ여ᄀᆞ게ᄂᆞᆯ나더니갓가이ᄂᆞ니곳그
지아비라이ᄂᆞᆫ그지아비도ᄎᆡ의혜ᄉᆡᆨ혀ᄒᆞᆫ절ᄒᆞ여ᄉᆞ라가이의ᄭᅵ
여오미라ᄭᅥ로손유ᄅᆞᆯ말ᄒᆞ고본토로도라가니라


狐靈慶

宋袁粲因恥事蕭道成旣遇害有幼兒方數歲乳母攜之投粲門生狄靈慶慶曰吾聞出郎君者有厚賞乳母呼號曰公昔與爾有恩故冒難歸汝若殺郎君以求利神明有知行見汝滅門也兒竟死兒存時故常騎一大氈狗戲死後年餘忽有狗走入靈慶家遇靈慶於庭卽嚙殺之遂幷嚙殺其妻卽郎君所騎大氈狗也

송나라ᄃᆡ신원찬이송이망ᄒᆞ, 미계를섬기지아니ᄒᆞ여, 여이ᄆᆡ힉를만나고어린아ᄃᆞ리나히슈삼세라그유ᄆᆡ잇글고원찬의문싱젹ᄇᆡᆼ경의집으로가숨기려ᄒᆞ, 니ᄇᆡᆼ경이ᄀᆞᄅᆞᄃᆡ니ᄃᆞᄅᆞ, 니젹아ᄒᆡ를잡아간ᄂᆞᆫ지이시면즁상을밧으리라ᄒᆞ, 니이가히부ᄅᆡ를밧을ᄂᆞᆫ다ᄒᆞ거ᄂᆞᆯ그유ᄆᆡ소리질너왈우리공이일즉네게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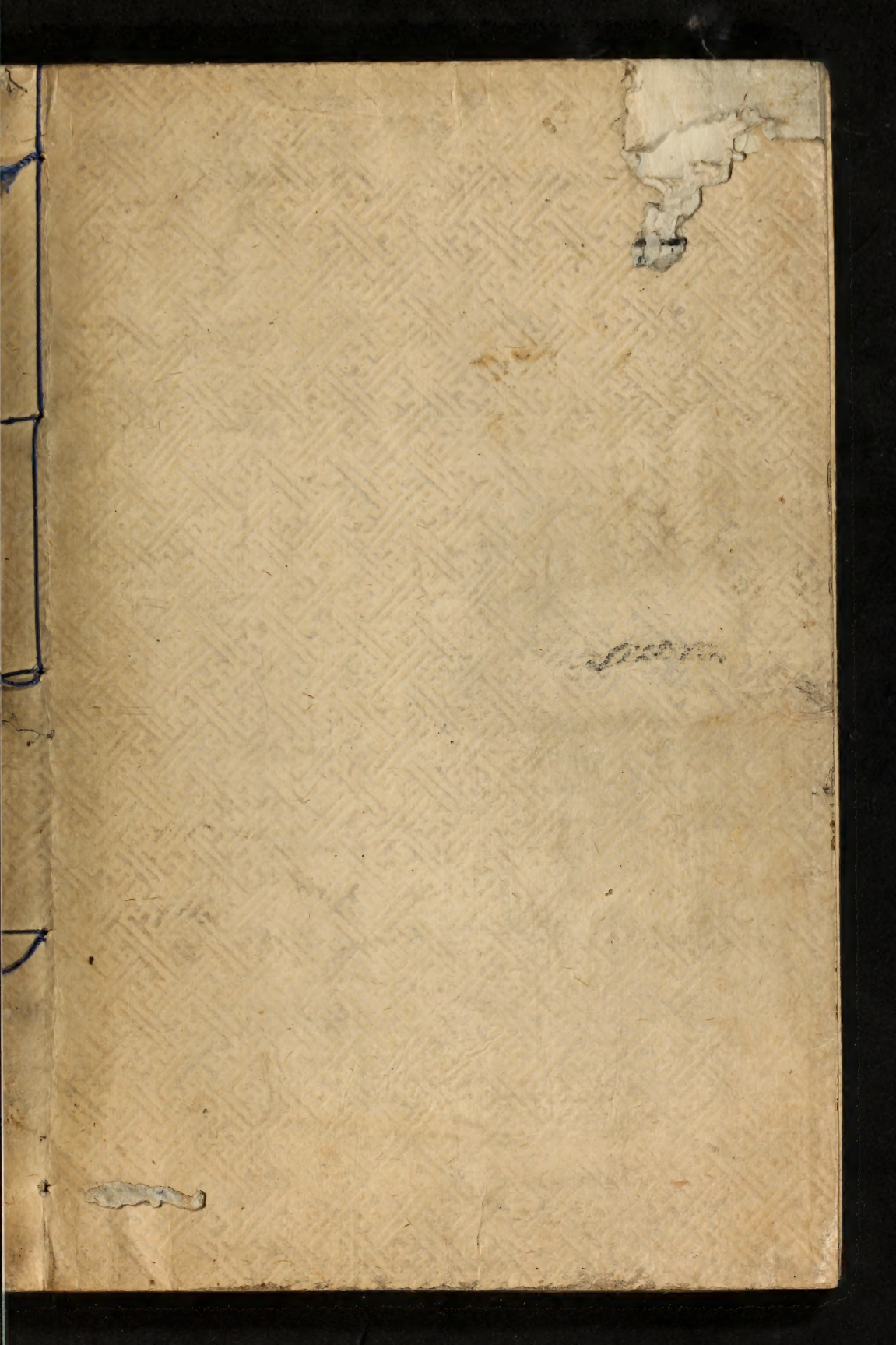
를 씻쳣ᄂᆞ니 이러므로 어려우믈 무릅쓰고 네게 도라왓
거ᄂᆞᆯ 네 만일 우리 아기를 ᄒᆞᆫ 여ᄂᆡ를 취ᄒᆞᆯ진ᄃᆡ
신명이 보리우시니 장ᄎᆞᆺ 멸문을 면ᄒᆞ랴 ᄒᆞ더니 그아히
필경 죽으니라 그아히ᄉᆞ라 실ᄭᆡ의 집의 근습ᄉᆞᆯ기
이서라 고히롱ᄒᆞ더니 그아히 죽은지 ᄒᆡ가 진ᄂᆞᆫ 후의 녕
경의 집으로 드리ᄃᆞ라 녕경의 부ᄌᆞ를 물어 홈씌 죽
이니라

陳進士

陳某中萬曆乙未進士未遇時館於某家與其嬖通惟同館金某與陳之表兄某知之向囑勿泄及陳登第許金厚報金亦不望報也陳在任屢書邀金金至任所送居僧寺每有關說輒辭事小一日獲大盜數人陳語金曰可矣非三千金勿乞又囑曰此盜也去則難追銀須封貯金信之與盜講定封貯及赴鞫則陳變色加刑令供贓物所貯處金不知機彀奮身隨行陳命擒下坐以窩頓之罪使者即歸報表兄某奔救已斃於獄矣未幾陳出謁上臺夜登舟聽鐵鏈聲甚衆從者啓揆見牛頭獄卒無數慌忙告陳亦惕然就寢夢攝至閻羅王殿跪於門外見金某蓬頭流血與已對質閻羅王切指訶責命獄卒以尖刀刺其頭血噴丈餘而殞驚覺即命迴舟歸衙至儀門見金某蓬垢以待

隨之入陳頸遂腫漸大如斗醫云必須用尖刀開之方可
刀下血噴丈餘而死一如夢中

만녁년간의선비진싱이잇셔궁곤ᄒᆞᆫᄆᆡ뉘집의ᄒᆞᆨ쟝ᄒᆞ더
니쥬인의시비를ᄉᆞ통ᄒᆞ니오직ᄒᆞᆫ가지로잇ᄂᆞᆫ김싱과진싱의
죠형이이날을아ᄂᆞᆫ지라진싱이김싱ᄃᆞ려당부ᄒᆞ여누설ᄒᆡ
말나ᄒᆞ고ᄯᆞ니로ᄃᆡ맛당이후이갑흐리라ᄒᆞ더니그후진싱이등
과ᄒᆞ여외임ᄒᆞ고자로편지ᄒᆞ여김싱을쳥ᄒᆞ거ᄂᆞᆯ김싱이
그임소의니ᄅᆞ니절의보ᄂᆡ여머물게ᄒᆞ고ᄆᆡ양쳥촉의날을
말ᄒᆞᆫ즉그날이ᄀᆞᆨ다ᄒᆞ고시힝치아니ᄒᆞ더니일ᄌᆞ은큰도적두
어슬잡앗ᄂᆞᆫ지라진싱이김싱ᄃᆞ려말ᄒᆞ여ᄃᆞ로ᄃᆡ이날이가장
됴흐니네그도적ᄃᆞ려니ᄅᆞ되쳥ᄒᆞ여노흐리라ᄒᆞ면제ᄀᆞᆯ겨조ᄌᆞ
리니쳥컨삼컨금이아니여든허락지말나ᄒᆞ고ᄯᆞ가마니

날너왈이는도적이라힝시밋지못홀거시니만일몬져노흐
면밧을곳이업스리니모로미몬져봉치흐게흐라흐니김싱이
올히넉여도적을로더부러청젼슈효를정흐고은조를가져
다가김싱의처소의봉치흐여스더니밋도적을국문흐실형
위를더흐여장물감촌곳을고흐라흐니도적이압흐믈이
긔지못흐여김싱의곳의두믈고흐니진리문득김싱을잡
아노리워도적의졉쥬인이라흐여스죄의미춘지라김싱이
사름을급히보니여진가의묘형의게고흐여구흠을청흐
니그묘형이놀나달녀오미발셔옥중의셔쥭엿더라오리
지아니흐여진리상스의비알흐실밤의비를라고가더니홀
연쇠스슬소리만히나거늘죵죵로흐여곰신창문을열고
보니무슈흐은우두귀졸이오는지라진리듯고또흐쳑연흐여

취침ᄒᆞ더니 꿈의 귀졸의게 잡혀 염나전의 드러가문빗거셜
어안젹눈을 들어보니 김싱이 봉두난발의 피를 흘니고
ᄉᆞ치ᄃᆡ 송ᄒᆞ엿더라 염왕이 ᄉᆞ지젹 옥졸을 명ᄒᆞ여 샤족ᄒᆞ
ᄒᆞᆫ 칼노 그 머리를 지르니 피샘 기를 길나 마ᄒᆞ ᄃᆞ가 죽은지
라 놀나ᄭᆡ여 즉시 빈를 두루혀 아증의 도라올시 경유문
의 니ᄅᆞ니 김싱이 또 그 모양으로 와 길ᄃᆞ리다가 ᄭᆞᆫ ᄃᆞ러오니
진리 즉시 목의 ᄃᆡ종이 발ᄒᆞ여 ᄉᆞ기 말 만ᄒᆞᆫ지라 의원이 니
르ᄃᆡ 모로미 샤족ᄒᆞᆫ 칼 노 질ᄇᆡ 파종ᄒᆞ여 야 나으리라 ᄒᆞ고
칼을 들어 지르니 피샘 어길 어 넘고 죽으니 령히 쾌셤
과ᄌᆞ치 되엿더라